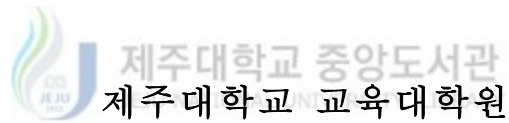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지도교수 김 동 전



역사교육 전공

고 행 미

2006년 2 월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지도교수 김 동 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고행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12월 일

| | |
|-------|---|
| 심사위원장 | 인 |
| 심사위원 | 인 |
| 심사위원 | 인 |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고행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동전

본 연구는 추자군도를 통칭해서 부르는 추자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첫째, 추자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추자도의 인문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추자도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추자도에 관한 역사문화자료를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셋째, 전라도와 제주도의 문화가 혼재되었으나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닌 추자도의 문화를 제주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제주문화의 지평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넷째, 추자도 학생들은 물론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추자도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유적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추자군도는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 등 4개의 유인도서와 38개의 무인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추자도는 진도, 강진, 제주, 영암으로 통하는 곳이며 상선 등을 이용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지형학적 위치로 인해 예로부터 심한 풍랑을 피해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후풍도로 널리 알려져 왔다. 추자도의 자연부락은 상추자 2개, 하추자 4개로써 인구는 7,000 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3,000여 명이다. 주민 90%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대서리의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물이 산재된 예초리의 경우를 통해 추자도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최영 장군이 주민들에게 고기 잡는 법과 농업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한때 추자주민들이 제주시 도근천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영암, 해남, 제주 등으로 이속되다가 1914년 제주로 이속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어업조합의 횡포에 대항하여 어민항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셋째, 추자도 주민은 생활·언어·정서면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제주도에 속하나 언어나 생활양식은 아직도 전라도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혼재 양상을 띠던 추자도민의 생활 풍습은 점차 제주에 가까워지고 있다.

넷째, 추자도에는 고인돌로 추정되는 대서리 유적, 예초리의 탐라시대 무문토기편, 최영 장군 사당, 처사각, 순효각 등 역사, 생활문화 유적, 신앙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는 추자 학생은 물론 제주지역 학생들과 추자도 향토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청정해역으로 다가오는 해양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추자군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심화된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이 추자도의 역사와 생활상을 이해하는 조그만 단서가 되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6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
| II. 추자도의 인문 지리적 환경 | 4 |
| III. 추자도의 역사적 변천과 유적 | 14 |
| 1. 선사시대의 추자도 | 14 |
| 1) 설촌 유래 | 14 |
| 2) 선사시대의 추자도 | 15 |
| 2. 고려·조선 시대의 추자도 | 17 |
| 1) 최영의 목호 토벌과 추자도 | 17 |
| 2) 후풍처와 추자도 | 19 |
| 3) 추자도와 왜구 | 26 |
| 4) 유배인과 추자도 | 29 |
| 5) 기록에 나타난 추자도의 생활상 | 33 |
| 6) 기타 유적 | 39 |
| 3. 일제강점기 하의 추자도 | 42 |
| IV. 맺음말 | 48 |
| 참고 문헌 | 50 |
| Abstract | 52 |

<표 목차>

| | |
|---|----|
| <표 1> 추자도의 인구 변천 | 11 |
| <표 2> 마을별 인구수 (2004. 12. 31 현재, 단위: 명) | 12 |
| <표 3> 추자주민이 종사하는 산업 분포도 (2004.12.31 현재) | 12 |
| <표 4> 대서리 추정 고인돌 | 16 |
| <표 5> 추자도에 유배 왔던 사람들(영조, 정조) | 29 |
| <표 6> 추자도에 유배 왔던 사람들(순조, 헌종) | 30 |
| <표 7> 추자도에 유배 왔던 사람들(철종, 고종) | 31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추자도의 지리적 위치 | 4 |
| <그림 2> 추자군도의 모습 | 5 |
| <그림 3> 추자마을지도 | 6 |
| <그림 4> 상추자도 | 6 |
| <그림 5> 하추자도 | 8 |
| <그림 6> 사수도와 장수도가 함께 표시된 지도 | 10 |
| <그림 7> 대서리 메지박에 있는 고인돌 | 15 |
| <그림 8> 대서리 선돌 | 16 |
| <그림 9> 예초리 엄바위 | 16 |

| | |
|--|----|
| <그림10> 신묘금지비 | 18 |
| <그림 11> 최영 장군 사당 | 19 |
| <그림 12> 최영 장군 사당 내부의 신축기 | 19 |
| <그림 13> 『팔도지도』 중 전라도 지도에 나타난 추자도 부분 | 21 |
| <그림 14> 추자도 근처에서의 표류 | 25 |
| <그림 15> 처사각 | 31 |
| <그림 16> 황경한의 묘 | 32 |
| <그림 17> 순효각 | 39 |
| <그림 18> 군수민공창호영세불망비 | 39 |
| <그림 19> 물생이끝당 | 40 |
| <그림 20> 묵리 할망당(처녀당) | 40 |
| <그림 21> 예초리 장승제당 | 41 |
| <그림 22> 예초리 갯도진지(1) | 45 |
| <그림 23> 예초리 갯도진지(2) | 45 |
| <그림 24> 예초리 갯도진지(3) | 46 |
| <그림 25> 예초리 갯도진지(4) | 46 |
| <그림 26> 예초리 갯도진지(5) | 46 |
| <그림 27> 예초리 갯도진지(6) | 46 |
| <그림 28> 신대 갯도진지(1) | 46 |
| <그림 29> 신대 갯도진지(2) | 46 |
| <그림 30> 신대 갯도진지(3) | 46 |
| <그림 31> 신양리 7자동굴 | 46 |

I. 머리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오늘날의 역사학 연구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독일의 일상생활사, 프랑스의 망탈리테사, 이탈리아의 미시사 등과 함께 구술사, 개인 생애사, 신문화사 등의 새로운 역사연구 방법론의 등장과 이러한 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국사를 새롭게 보려는 경향이 매우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사처럼 중앙 중심의 역사가 지배적일수록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을 향토 혹은 지역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토라는 말은 향토사학자들이 애향심과 향토애에 바탕을 둔 자기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이 내재되어 있고, 지역이란 개념 속에는 중앙에 종속되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장점은 있지만 그 자체의 독립 개체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지방이라는 개념은 중앙에 종속되는 의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서울이라는 중앙과 대비되는 것으로 서울 밖의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본래 지방은 전국의 국토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특정 영역의 땅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때에 서울도 한성부로 하나의 지방이었다.

향토 혹은 지역이라는 용어보다 지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향토와 지역에 포함된 의미와 함께 중앙과의 관계, 그리고 타 지방과의 관계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중층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서민들의 삶 그 자체이며 그 지방의 역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가 중앙이고 이 중앙에는 국왕과 귀족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위치하여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사학자들의 관심은 중앙으로 끌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지방의 역사상을 뚜렷한 모습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추자군도를 통칭해서 부르는 추자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추자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제주도는 제주 본 섬을 제외하고 8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와 추자군도의 상추자, 하추자, 추포도, 횡간도가 그것이다. 18·19세기에 추자도의 행정구역을 제주도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1914년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제주도와 추자도는 많은 점에서 상이한 점이 없지 않다. 즉, 현재 추자도는 행정적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속하나 언어, 생활 풍습, 정서면에서 전라도에 너무나 가깝다. 제주도와는 집 모양이나 구조, 음식이 다르고 특히 말씨나 억양이 다르다. 여러 면에서 추자도는 전라문화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자도에 대한 연구는 전라문화권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추자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제주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제주문화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추자도 주민의 지역정체성 확보이다. 추자도는 1914년 제주도에 편입되어 100여 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도인과의 공동체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자도 주민들은 행정적으로는 제주도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전라문화권에 속하는 이중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추자도 주민들 스스로 ‘우리도 제주도민의 한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역사와 문화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추자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추자도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추자도 역사와 문화는 추자도에 기반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지리·사회적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자도를 지켜올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추자도의 미래는 추자도 주민들의 현실 인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추자도 주민들이 추자도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얼마나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추자도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자도의 과거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최근 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도 지방사와 지방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위 향토사 교육은 역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역사 학습과 국가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학습

하므로 역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생활 주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역사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높여 준다.¹⁾

본 연구 자료는 추자도 학생들에게 학생 개인이 살고 있는 향토 역사를 배우게 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시키고, 현장 학습에 도움을 줌으로써 현실감과 생동감 있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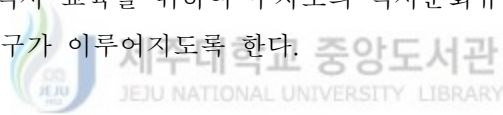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자도의 지리적 위치, 인구 변동과 행정 구역 변천, 마을별 특징 등 추자도의 인문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추자도에 관한 역사문화자료를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시대별로 알아보고 추자도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전라도와 제주도의 문화가 혼재되었으나 나름대로 독창성을 지닌 추자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제주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제주문화의 지평을 확대하려고 한다.

넷째,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추자도의 역사문화유적을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생생한 역사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최태정, 「향토사 학습의 원리와 지도」,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354~355쪽.

Ⅱ. 추자도의 인문 지리적 환경

추자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6° 30′, 북위 34° 20′ 이다. 추자군도는 4개의 유인도서인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와 38개의 무인도서로 모두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자도의 면적은 7.05km² 해안선의 길이는 8.3km이다. <그림 1>은 추자도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다도해를 나타낸 것이다. 추자도는 제주 시에서 45km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목포에서 93km, 완도에서 68km 떨어져 있다.



<그림 1> 추자도의 지리적 위치

추자도에는 천연기념물 제333호 사수도 흑비둘기, 습새 서식지가 있으며 추자10

경2)으로 유명하다.

<그림 2>는 추자군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자군도의 행정구역명은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이다. 추자군도의 유인도서는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이다. 그리고 무인도로 직구도, 수덕이, 사수도 등 38개가 있다.



<그림 3> 추자군도의 모습

2)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91~92쪽.

<추자십경(楸子十景)>

1. 우두일출(牛頭日出) : 하추자 가장 동쪽 '쇠머리'에서 초여름 맑은 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
2. 직구낙조(直龜落照) : 상추자의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직구도에서의 일몰(日沒).
3. 신대어유(新臺魚遊) : '흑검도', '사자섬', '쇠코', '쇠머리'로 둘러싸인 바다를 '신대'(물갈샘)라고 하는데 천혜의 어장임. 신대어유란 이곳의 물고기의 움직임을 보는 것임. 특히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함.
4. 수덕낙안(水德落雁) : 사자를 닮은 수덕도에 앉아 있던 갈매기를 비롯한 물새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물 속으로 쏙살같이 내리꽂히는 모습.
5. 석두청산(石頭靑山) : 신양항 정면에 자리잡은 '석지머리'는 푸른 산(靑島)과 기암절벽이 병풍을 두른 듯함. 산이 마치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암반 사이의 푸름을 말함.
6. 장작평사(長作平砂) : 신양항 인근 '진작지'의 작고 둥글납작한 돌들이 폭 20m, 길이 300여m의 해변에 층층이 쌓여 있는 장관.
7. 망도수향(望島守鄕) : 추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동쪽에 있는 보름섬(望島)을 보면서 마음 설렘.
8. 횡간추범(橫干追帆) : 횡간도(橫干島)에서 흰 돛을 단 어선들이 만선기(滿船旗)를 달고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모습.
9. 추포어화(秋浦漁火) : 추포도 일대에서 여름 밤바다를 살살이 훑으며 멸치 떼를 모으는 어선들의 작업 광경.
10. 광계창파(靑界滄波) : 광계는 관탈섬의 다른 이름으로 유배객들이 이곳에 다다르면 머리에 쓴 갓을 벗었다고 함.

<그림 3>은 추자군도의 유인도서인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를 나타낸 지도이다. 4개의 유인도 중 상추자는 2개의 마을, 하추자는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횡간도는 행정 구역상 대서리에, 추포도는 예초리에 속한다. 면적은 하추자가 상추자보다 큰 편이나 현재 행정의 중심은 상추자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4> 추자마을지도

<그림 4>는 상추자이며 대서리와 영흥리 두 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상추자에는 추자면사무소, 추자우체국, 추자파출소, 추자초등학교, 추자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상추자의 유적지는 최영 사당, 반공탑, 추정 고인돌군, 처사각, 순효각, 산신당 등이 있다. 상추자는 김상헌의 『남사록』에 신도(身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추자면사무소가 대서리에 있어서 추자도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그림 5> 상추자도

대서리는 상추자에서 동남향으로 앉아있는 포구마을이다. 김상헌이 이곳에서 후풍 하였으며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 때 김방경과 몽골의 혼도가 여기서 후풍하였다는 기록³⁾이 있다. 이 마을 초등학교 뒷산에는 예로부터 신당(神堂)⁴⁾이 있었는데 후풍하는 사람들이 바람이 잦아들기를 이 당에 빌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최영⁵⁾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다. 예전에 대서리는 서쪽을 큰 작지(큰작제) 동쪽을 작은 작지, 자근작지(작은 작제)라고 했다. 대서리의 성씨는 밀양 박씨, 충주 지씨, 전주 이씨, 진주 강씨, 진주 추씨 등이 있다.

추자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촌된 것으로 보이는 영흥리에는 현재의 면사무소 격인 진소(鎭所)가 있었으나 일제시대 일본군들이 대서리로 옮겨 버렸다. 영흥리는 절이 있었다 하여 일제강점기 때에는 ‘절끼미(절꾸미, 절기미)’라 불리웠으나 마을명이 좋지 않다는 풍수지리에 따라 ‘영원히 흥하라’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영흥리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 영흥리의 성씨는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진주 강씨, 충주 지씨 등이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추자에는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등 4개의 마을이 있으며, 추자중학교,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등이 있다. 하추자의 유적지는 할망당(처녀당), 물생이끝당, 황경한묘, 예초리 장승제당, 유물산포지, 예초리 일본군 갱도진지, 신양리 7자동굴 등이 있다.



3)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330~331쪽.

4) 김상헌, 선조 35년(1602), 『남사록』 권4, 임인년 정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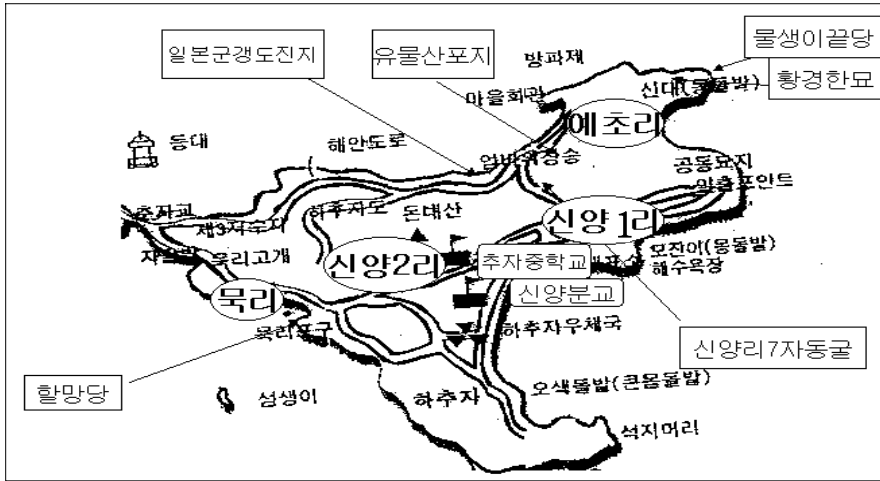
선조 35년(1602 1월 29일 임술). 호리고 서풍이 크게 불다. 추자도 당포 선상에 유숙하다. 섬 북안에 사당이 있고 왕래하는 선인이 신에게 빌고 바람을 비는 곳인데 포구 이름이 당포로 된 것은 이 때문이다.

5) 고창석 편저, 『탐라국 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295~296쪽.

최영 사당이 추자도에 있게 된 배경은 목호토벌 당시 후풍하면서 추자도민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공민왕 23년(1374년) 최영이 관군인을 거느리고 8월 12일에 포왜선(捕倭船) 30척에 나누어 타고 즉시 진도에서 회합하고 출발하였다. 소한(지금의 소안도)·보길도에 이르렀는데, 역풍이 되어 24일에 이르러 출항하였으나 사나운 바람이 불어 배 30척을 잃고 추자도로 들어갔다가 당일 28일에 출발하였다. 제주 명월포에 정박하였다. 최영은 9월 23일에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 화탈이해도(火脫伊海島)에 이르렀으나 역풍을 만나 명월포로 되돌아갔다. 다음날에 다시 출항하여 추자도에 이르러 정박했다. 10월 5일 출항하여 취도(鷲島)에 이르렀으나 또 악풍을 만나 추자도로 돌아가 정박했다가 당일 18일에 출항하였다. 또 악풍을 만나 진도 및 소한·보길도 등지에 이르렀다. 11월 3일 전라도 목포에 이르러 해안에 정박했다.

6) 「길 따라 마을 따라: 영흥리」, 『제민일보』, 1995년 3월 30일.



<그림 6> 하추자도

목리는 하추자의 서남쪽 계곡 비슷하게 우묵한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옛 이름은 '미기'다. 목리 남쪽 해안가에는 '당모재'라는 지경이 있으며 여기에 지금도 해신당이 있고 그 서쪽에는 포구가 있다. 이 마을 '생금이' 지경에는 '금관골창'이라는 골짜기가 있다.⁷⁾ 지금 목리의 성씨는 김해 배씨, 김해 김씨, 해남 윤씨, 밀양 박씨, 제주 고씨 등이 있다.

신양1리의 옛 이름은 '어루기미', '얼구미', '얼기미'로서 '기'나 '미'는 모두 물과 관련이 있는 고어인데 물가 또는 샘이 있고 고기가 많이 놀았다는 데서 연유된 듯하다.⁸⁾ 이 마을은 해가 뜰 때 햇빛을 직선으로 받기 때문에 태양(太陽)의 양(陽)자를 써 신양(新陽)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양리 '새개' 남쪽에는 '배부서진 앞개'가 자리 잡고 있다. 오래 전 이곳에서 큰 배가 좌초돼 부서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 '배부서진 앞개'라고 한다. 신양리에서 '무기재'를 타면 목리가 나오고 '바람재'를 타면 예초리가 나온다. 예초리로 넘어가는 '바람재'는 바람 잘 날이 없다.⁹⁾ 신양1리는 하추자의 남쪽 해변을 끼고 동서로 길쭉하게 앉아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북쪽은 가장 높은 돈대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마을 전체가 작지(자갈)로 유명한 신양항을 끼고 있다. 이 마을은 신양2리와 더불어 이합집산도 여러 차례했다. 신상리, 신하리, 장작지(진작지) 등으로 나뉘어 있던 마을이 일제강점기 때 신하리를 신양1구, 신상리를 신양2구, 장작지를 신양3구로 부르다가 현재는

7) 이 골짜기는 길이 50m쯤 굴을 파 들어갔는데 일제시부터 1960년대까지 금과 동, 구리, 광석을 채굴했던 현장으로 이 무렵에는 신흥리라고 불렀다.

8)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82쪽.

9) 「제주의 포구: 추자도」, 『제민일보』, 1995년 1월 24일.

신상리와 신하리를 합하여 신양1리가 되고 장작지는 신양2리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 이 마을에는 전주 이씨, 경주 이씨, 원주 이씨,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진주 강씨, 청주 김씨, 해남 윤씨, 파평 윤씨, 제주 고씨, 동북 오씨, 초계 최씨, 강릉 유씨, 경주 유씨, 해주 최씨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¹⁰⁾

장작지로 불리는 신양2리는 하추자의 서남녘에 있다. 이 마을은 한때 신양3구로 나뉜 적이 있으나 1988년 이후 신양2리로 명칭이 바뀌었다. 묵리와 신양1리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은 본래 집성촌으로 창원 황씨와 진양 하씨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씨족구조이다. 이밖에 이씨, 김씨, 최씨, 윤씨 등이 살고 있다.¹¹⁾

예초리는 하추자의 동북단에 위치한 작은 포구마을이다. 이 마을은 함안조씨 영지공파 봉회가 입향함으로 설촌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북 오씨는 중덕이 1720년에 이 마을에 와서 집성촌이 되었다. 1801년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된 정난주(황사영의 처)가 두 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오다가 이 마을 바닷가 ‘물생이끝’에 내버린 것을 동북 오씨 입도 후 3대인 오상선씨가 키우게 되며 후에 황씨의 입향조가 된다.

횡간도의 옛 이름은 ‘빛갱이’로 불린다. 섬의 모습이 길이로 비껴서 앉은 데 연유된 것 같다. 횡간도에는 한하르방당과 우물이 있는데 추자도 다른 곳의 우물들은 모두 한 곳에 입구가 하나씩이지만 횡간도의 이 우물은 입구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되었다. 행정구역상 대서리에 속하며 300여 년 전 강씨가 설촌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간도의 포구는 제주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청음 김상헌은 ‘이 섬으로부터 이북은 육지인데 해수가 혼탁하고 이남은 제주라 하여 해수는 빛이 푸르고 바람이 없어도 물결은 높다’고 했다. 이 섬의 허리에 오르면 북쪽으로 보길, 청산, 조도 등 전남 진도와 완도 일대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¹²⁾ 1951년 8월 28일 추자초등학교 횡간분교장이 설립되었으나 차츰 학생수가 줄어 1991년 3월 1일 폐교되었다.¹³⁾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이 마을에는 18가구 30명(남 14, 여 16)이 살고 있다.

추포도의 옛 이름은 추가리이며 행정구역상 예초리에 속한다. 추포도의 포구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접안 장소를 달리하는 간이 포구이다. 지금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바깥 출입이 많고 아예 대서리에서 살다가 물때에 맞추어 물질할 때에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인도서의 하나인 사수도는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 55분 해상에 위치하며 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해 추자면 부속도서로 등록되었다. 이후 1931년에는 추자도 어업조합 전용어업면허구역으로 등록되었는데 1979년에 완도군도 장수도로 등록해

10)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앞의 책, 1999, 49쪽.

11)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앞의 책, 1999, 50쪽.

12) 「제주의 포구: 추자도」, 『제민일보』, 1995년 1월 24일.

13) 이 분교장 자리에 1994년 11월 추자초등학교장이 세운 ‘배움의 옛터’에 따르면 이 분교장은 26회에 1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버렸다.

1972년에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한 『추자군도의 생물상 조사보고서』에 보면 추자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 장수도와 사수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¹⁴⁾ 그러나 200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975년 이후 제작된 우리나라 표준지도에 사수도와 장수도가 따로 표기된 것이 오류란 점을 인정하였다.¹⁵⁾ 이에 따라 국토지리원은 최근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밝혔다¹⁶⁾



<그림 7> 사수도와 장수도가 함께 표시된 지도

사수도는 상록수림이 자연 그대로 보전돼 있고, 섬 주변 해역이 참치, 돔, 다랑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현재 완도와 북제주군이 서로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추자초등학교 육성회와 학교에서는 사수도를 보호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이 조업차 사수도 근해에 갔을 때 수시로 사수도를 선회하여 관리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14) 이창복, 「추자군도의 식물상」, 『추자군도의 생물상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67쪽.

15) 「북군 '사수도 지키기' 착수」, 『제주일보』, 2005년 7월 12일.

16) 「북군 관할 분명한 황금어장 사수도」, 『제주일보』, 2005년 7월 11일.

17) 사수도는 1919년 임야조사령에 의해 추자면 부속도서로 등록된 이래, 1967년 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 등을 거쳐 1972년 추자초등교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북군 관할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완도군은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등록' 때 '장수도(獐水島)'로 광주지법에 등록하면서 자기네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등록해 버렸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은 정부산하 각 부처가 사수도를 제주지역 소속도서로 분류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이 소유와 관리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1967년 4월 14일에 제주세무서장과 추자초등학교장 사이에 체결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해 사수도가 합법적으로 취득된 북제주군 관할의 사유재산인 점을 꼽았다. 반면 완도군은 사수도의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점과 지적도의 모양, 지명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내세워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을 고수, 북제주군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업차(해조류 채취) 사수도에 상륙한 해녀들은 자연보호 활동과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2005년 11월 18일에 북제주군에서는 사수도에 군기 게양식을 갖고 사수도가 북제주군 소유임을 확인했다.¹⁸⁾

추자도의 전체적인 인구 변천 및 마을별 인구수를 보면 <표 1>, <표 2>와 같다.¹⁹⁾

<표 1> 추자도의 인구 변천

| 연도 | 인구수 | 비고 |
|-------|--------|---|
| 1928년 | 3,486명 |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했던 제주도의 『생활실태조사』에 1928년 당시의 추자도 인구는 759호에 남자 1,813명, 여자 1,674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1934년 | 3,503명 | 1934년 『추자면세 개요』에는 638호(조선인 603호, 일본인 35호)에 조선인 3,347명, 일본인 15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됨. |
| 1952년 | 5,264명 | 농업호수는 336호(1932명), 수산업은 393호(2583명)로 수산업 인구가 농업을 능가하고 있음. |
| 1969년 | 6,771명 | 어업 인구는 551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이 420명, 상업 31명, 농업 95명에 불과함. |
| 1987년 | 5,298명 | 인구가 1969년에 비해 1,500여명 정도 줄어듦. |
| 1999년 | 3,502명 | 1,253가구에 수산인구가 1330명으로 가장 많고 숙박, 음식점 16명, 도소매 115명이며 농업인구는 거의 없어짐. |
| 2000년 | 3,284명 | 1,277가구 |
| 2004년 | 3,166명 | 1,415가구에 남자 1,694명, 여자 1,472명이 살고 있음. 2004년 12월 31일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35세대 1,179명(어업인 1,043명, 잠수 133명)이다. 수산업이 90%이며 농·축산업은 소규모의 자급형태임. |

18) 「북제주, 사수도에 군기 게양」,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9일.

19)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앞의 책, 1999, 78~80쪽.

〈표 2〉 마을별 인구수 (2004. 12. 31 현재, 단위: 명)

| 구분 | 가구수 | 인구수 | | | 입도조 | 비고 |
|-----|-------|-------|-------|-------|----------------------------------|---------------------------|
| | | 남 | 여 | 계 | | |
| 상추자 | 969 | 1,249 | 965 | 2,214 | 밀양 박씨 충주 지씨 | 대서리 영흥리 |
| 하추자 | 446 | 445 | 507 | 952 | 김해 김씨 창원 황씨 김해 배씨 함안 조씨 | 신양1리 신양2리 묵리 예초리 |
| 횡간도 | 18 | 14 | 16 | 30 | 달성 서씨 | (대서리) |
| 추포도 | 3 | 1 | 4 | 5 | 충주 지씨 | (예초리) |
| 계 | 1,415 | 1,694 | 1,472 | 3,166 | . | . |

추자도의 인구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3,486명이었으나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1969년에는 6,77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차츰 인구가 감소하여서 2004년 현재에는 1,415가구에 남자 1,694명, 여자 1,472명이 살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35세대로 1,179명(어업인 1,043명, 잠수 133명)이다. 상추자에는 2,214명, 하추자에는 952명이 살고 있으며 추포도는 5명이 살고 있다.

추자주민은 90% 이상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은 소규모 자급형태이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분포도는 <표 3>과 같다.²⁰⁾

〈표 3〉 추자주민이 종사하는 산업 분포도 (2004.12.31 현재)

| 구분 | 현황 |
|-------|--|
| 수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가구(335세대 1,179명), 어업인(1,046명), 잠수(133명) · 어항: 3개항(연안항~추자, 예초, 3종~신양항, 소규모~묵리) · 어선어업: 255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종업종: 조기유자망(77척), 삼치, 방어 등 채낚기(178척) · 마을어업권: 5개 어촌계, 잠수 1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취물: 소라, 전복, 톳, 모자반 · 낚시어업: 31척(10톤 미만 연안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조수입: 7억 1,900만원 · 어업가구당 조수입: 8,800만원 |
| 농·축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 1.65km²(전: 1.61km², 답: 0.04km²) · 가축: 59가구, 223마리(닭: 30마리, 산양: 76마리, 개: 117마리) |
| 숙박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숙박시설 : 총 55개(객실수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서리(9), 영흥리(4), 묵리(13), 신양1리(14), 신양2리(4), 예초리(11) |

20) 추자면사무소의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일반현황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추자도민이 좋아하는 산업은 수산업이 가장 많다. 어선들이 바다로 출조하는 시기는 삼치와 방어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기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멸치는 8월에서 9월까지이다.

추자에는 3개의 어항이 있으며 주업종은 조기유자망, 삼치, 방어 등 채낚기로 255척의 배가 있다. 품종별 어업생산 실적을 보면 조기, 멸치, 삼치순으로 생산되며 어업 가구당 조수입은 8,800만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추자군도는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유인도 중 상추자는 추자군도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대서리와 영흥리 두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하추자는 상추자보다 면적이 넓으며,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횡간도는 행정구역상 대서리에 속하고, 추포도는 예초리에 속한다.

추자도의 인구는 총 3,166명으로 상추자가 2,214명, 하추자 952명이다. 입도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밀양 박씨, 김해 김씨, 남양 홍씨, 추계 추씨, 원주 원씨, 해주 최씨, 인동 장씨, 강릉 유씨, 화계 변씨, 김해 배씨, 홍양 천씨, 해남 윤씨, 창원 황씨, 진주 하씨, 전주 이씨, 진주 강씨, 청주 김씨, 함안 조씨, 동북 오씨 등이 추자도에 유배된 사람의 후손이다.²¹⁾

추자도의 주 생산 기반은 수산업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조기, 삼치, 방어, 멸치, 갈치, 고등어 등을 잡는다. 농·축산업은 소규모이다.

21)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앞의 책, 1999, 95쪽.

Ⅲ. 추자도의 역사적 변천과 유적

1. 선사시대의 추자도

1) 설촌 유래

추자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나 고증은 없으나 서기 662년 신라 문무왕 때 탐라가 신라에 입조하면서 상선 등을 이용한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뱃사람들이 제주와 육지간에 후풍을 하면서 이 섬에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자도의 설촌 유래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기 662년 신라 문무왕 때 탐라는 신라에 복속되고, 그 이전부터 백제 때에도 예속되어 제주가 반도와 연계되고, 비로소 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 이미 조공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제주에서 육지를 왕래하던 선박들이 해상의 중간 지점인 추자도를 후풍(候風)지점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무인도였던 추자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 원종12년인 1271년(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오던 해)에 설촌된 기록이 있다.

그 후 조선조 말엽인 1821년(순조 21년)에 육지와 정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때부터 별장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91년(고종31년)에 완도군이 창설되면서 1896년에 다시 완도로 넘겨졌다가 상, 하추자 2개 단위로 진소(鎭所)가 두어지게 되었고 현재의 면제와 비슷한 직강제에 의해 다스려 졌다.

일제하인 1908년 전국을 13개 도로 하고 제주에 도사(島司)를 두어 업무를 관장할 때 다시 제주도로 이관되어 제주 13개 면 중의 1개 면이 되었으며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 실시로 북제주군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추자도의 명칭의 유래는 1271년(고려 원종 12년)에 어선들이 제주와 육지간 항해 중에 풍량이 심하면 후풍하면서 이 섬에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순풍을 기린다는 뜻의 후풍도(候風島)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으며 전남 영암군에 소속될 무렵부터 추자도(楸子島)로 불리웠다는 설과, 바다 가운데 가래나무(楸)의 열매가 마치 바둑알처럼 흩뿌려 놓은 것 같다 하여 추자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²²⁾

22) 추자도 등대산에 세워진 추자도 설촌 유래 자료이다.

내용 중에 ‘일제하인 1908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1914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추자도의 지명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섬에 추자나무 숲이 무성한 탓에 추자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²³⁾과 바다 가운데 가래나무(楸)의 열매가 마치 바둑알처럼 흩뿌려 놓은 것 같다 하여 추자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²⁴⁾이 있다. 어느 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추자도에서는 섬의 발전 차원에서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추자도에 가래나무를 조성해 놓은 상태이다.²⁵⁾ 1972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한 『추자군도의 생물상 조사보고서』²⁶⁾에는 추자도에 자라는 식물 목록에 가래나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2) 선사시대의 추자도

선사시대에 추자도에 사람이 살았는지는 선사시대의 유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추자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선사시대의 유물로는 대서리 추정고인돌군과 예초리 유물 산포지가 있다.



<그림 8> 대서리 메지박에 있는 고인돌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에서는 대서리 고인돌들을 정리하면서 추자면 영흥리 공동묘지 남쪽에 고인돌군이 산재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⁷⁾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인돌들은 영흥리 소각장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공동묘지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해안과는 불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 모두 위치한다고 하며 대표적인 고인돌의 크기와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추자도 발간팀은 기존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북제주군에 재조사를 의뢰한바 있다.²⁸⁾ 이 고인돌군은 『북제주군

23)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171~172쪽.

24) 등대산에 세워진 추자도의 설촌 유래 안내도에 있는 내용이다.

25) 「추자도에 추자나무 시범 식재」, 『한라일보』, 2002년 8월 29일.

26) 이창복, 「추자군도의 식물상」, 『추자군도의 생물상 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22쪽.

추자군도에 자라는 식물 중 단자엽을 제외한 식물은 63과 134속, 163종, 3변종 및 1잡종으로서 모두 167종이다. 이 중 상록활엽수는 19종류이다(후추등, 메밀жат밤나무, 모람, 방기, 남오미자, 생달나무, 가마귀쪽나무, 참식나무, 왕후박나무, 돈나무, 무릎나무, 동백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사스레피나무, 산유자나무, 보리밥나무, 송악, 팥나무, 마삭줄).

27) 1998년 1월에 발간된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 추자면 영흥리 공동묘지 남쪽에 고인돌군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8)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38~39쪽.

문화유적 분포지도』에도 실려 있으며²⁹⁾ 모두 4기가 있다.

<표 4> 대서리 추정 고인돌

| 구분 | 상석의 크기 | | | 특징 |
|--------|--------|-------|-----------|--|
| | 길이 | 폭 | 두께 | |
| 고인돌(1) | 225cm | 180cm | 120-150cm | 타원형의 상석은 남쪽이 20cm 가량 들려져 있다. 상석 밑으로 지석은 볼 수 없고 상석에서 떨어져 나간 괴석들이 보인다. |
| 고인돌(2) | 420cm | 180cm | 80-100cm | 상석의 평면 모양은 장타원형에 가깝다. |
| 고인돌(3) | 230cm | 180cm | 80-100cm | 지석은 상석의 남쪽에 길이 20cm의 괴석으로 고여 있다. 상석의 평면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
| 고인돌(4) | 465cm | 240cm | 90-100cm | 지석은 보이지 않으나 매우 안정되게 놓여있다. 상석의 평면모양은 장타원형에 가깝다. |

대서리 선들은 추정 고인돌군과 인접해 있으며 바다와 연결해 있어 경계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초리의 유물산포지는 예초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탐라시대의 무문토기편이 발견되었다. 해안도로 공사로 북쪽으로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주변에는 큰 돌들이 널려 있으며 10여 평을 제외하고는 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다.³⁰⁾

지금까지 추자도에서는 아직 고인돌과 유물산포지 이외에 특별하게 다른 유적이 발견된 것은 없다.³¹⁾



<그림 9> 대서리 선돌



<그림 10> 예초리 엄바위

고인돌의 위치가 소재 마을부터 착오를 일으킨 점, 고인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점, 대표적인 고인돌의 덮개돌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점, 주변 나이든 어른들은 “고인돌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조사를 의뢰한 것임.

29) 북제주군·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일원피엔씨, 2002, 181, 268쪽.

30) 북제주군·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앞의 책, 2002, 268쪽.

31)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39쪽.

추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1989년 1월 대서리 167번지 박종백씨(52세)가 같은 마을

2. 고려·조선 시대의 추자도

1) 최영의 목호 토벌과 추자도

최영은 고려 충숙왕 3년(1316)에 태어나 우왕 14년(1388) 이성계 일파의 손에 암살될 때까지 고려의 명장과 재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추자도는 최영이 목호 토벌 때 순풍을 기다리면서 머물다간 곳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추자도민들에게 어망 편법 및 그물로 후리질하는 방법, 주낙질하는 방법 등 조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장군의 은덕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춘추에 봉향하고 있다.

최영이 제주도로 목호들을 토벌하러 나섰다가 중간에 추자도에 머문 기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공민왕 23년(1374) (최영이) 관·군인을 거느리고 8월 12일에 포왜선(捕倭船) 300척에 나누어 타고 즉시 진도에서 회합하고 출발하였다. 소한(지금의 소안도)·보길도에 이르렀는데, 역풍이 되어 24일에 이르러 출항하였으나 사나운 바람이 불어 배 30척을 잃고 추자도로 들어갔다가 당월 28일에 출발하였다. 제주 명월포에 정박하였다.

최영은 9월 23일에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 화탈이해도(火脫伊海島)에 이르렀으나 역풍을 만나 명월포로 되돌아갔다. 다음날에 다시 출항하여 추자도에 이르러 정박했다. 10월 5일 출항하여 취도(鷺島)에 이르렀으나 또 악풍을 만나 추자도로 돌아가 정박했다가 당월 18일에 출항하였다. 또 악풍을 만나 진도 및 소한·보길도 등지에 이르렀다. 11월 3일 전라도 목포에 이르러 해안에 정박했다.³²⁾

속설에 의하면 최영이 목호 토벌을 위하여 제주에 오가면서 추자도에 들렀을 때 바닷고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자 백성들이 잡을 줄 몰라서 어렵게 지내는

362번지에서 숙부(박성규씨)의 장례를 지내려고 땅을 파다 발굴된 고려시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청자장경호와 청자대접, 청자접시 등이다. 이 유물들은 당시 연대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버렸다.

32) 『이문』 공민왕 23년 11월조.

「統領官軍人等 於八月十二日 乘駕捕倭船三百隻 就珍島會合行使 到所閑·甫吉島爲是風逆至二十四日開洋 值惡風大作 損壞船三十餘隻 收人楸子島 當月二十八日發行 到濟州明月浦拋泊 於九月二十二日乘船 起離濟州行使至火脫伊海島 被逆風打回明月浦 於次日再行開洋 到楸子島停泊 十月初五日放洋至鷺島又被惡風 打回楸子島停留當月十八日放洋 亦被惡風 打到珍島 及所閑甫吉等處 十一月初三日 至全羅道木浦泊岸 緣所載馬匹」.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295~296쪽 재인용.

것을 보고, 칠푼글 속껍질로 실을 뽑아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으므로 그 후부터는 고기를 수월하게 잡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최영이 추자도에 들른 것은 1374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23일간, 모두 27일간을 머물렀으니 그 동안에 추자 백성들과 접촉할 기회는 충분하므로 위 속설의 신빙성은 크다 할 것이다.

1971년 8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기와로 덮인 사당 안에는 1m 높이의 비로 만들어진 위패가 서 있다. 위패에는 ‘조국도통대장최장군신위(朝國都統大將崔將軍神位)’ 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지내는 제사를 ‘대제(大祭)’ 혹은 ‘사당제(祠堂祭)’라 한다. 대제는 본래 여름철에 모셨다. 여름철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최영을 모시는 것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협에서 대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맡고 있다. 수협에서 대제를 맡으면서부터 제일을 봄철로 옮겨 길일을 받아 제사를 모시기 시작했다. ‘큰샘’이라고 하는 샘에 3~4일 동안 금줄을 쳐 두었다가 그곳의 물을 떠다 제사에 썼다. 개인이 정성을 들일 때에는 ‘젓샘’이라는 샘물을 이용한다. 제장에도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과거에는 제주 한 사람을 정하여 제주 집에서 목욕재계하고 제반 음식을 마련하였다. 제물로는 삼치·시루떡·시금치·산나물·듬부기·녹두나물 등을 준비한다.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으며, 최영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어업인의 넋을 위로하는 제를 지낸다.³³⁾



옛날에는 제를 지낼 때 축을 고하지 않고 했지만 조선 후기 본도로 유배 온 선비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축문³⁴⁾을 지어 주어서 제례시에 고하고 있다.

사당 동쪽에는 ‘신묘금지비(神廟禁地碑)’ 가 세워져 있다.³⁵⁾

<그림11> 신묘금지비

33) 추자지역에서는 헌석이라고 부른다. 설날(음력 1월 1일),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음력 2월 1일, 세 차례 지낸다. 제가 끝나면 제상 위의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한지에 싸서 바다에 던진다.

34) 축문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干支云云 獻宮幼學其 敢昭告于 朝國都統大將崔瑩將軍之靈 天覆地載 神明照鑑 靈驗昭昭 致誠報應 已多陰德 居民賴生 伏惟尊靈 舟缺欺土 祝願 漁農豐饒人物咸寧 謹以清酌次冠庶羞 欽薦于神 尚饗」.

35) 이 묘는 고려국 조정 도통사 최영이 임금의 명을 받아 목호를 토벌할 때 이 섬에서 후풍하며 백성들을 교화했으므로 그 때 살던 백성들이 사당을 세운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되었다. 그간에 재난을 막고 복을 빌었으므로 이는 어찌 지난날의 교화의 자취가 아니냐? 신축년에 조병하가 이 땅에 임명되자 그 충의와 더불어 민안을 위하여 몇 개의 계를 만들고 사시절 사당에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므로 성역이 아닌 데가 없는데 암장의 폐단이 있으므로 영문에 품달하여 완문을 받았다. 이에 상하도민은



<그림 12> 최영 장군 사당



<그림 13> 최영 장군 사당 내부의 신축기

2) 후풍처와 추자도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배길은 아주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중앙에서 제주로 오는 경우는 주로 유배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관리들이 부임할 때나 상선이 다니는 길목에 추자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추자도는 배사람들이 제주와 육지간에 왕래를 할 때 순풍이 불기를 기다릴 때 주로 이용되는 곳이다.

육지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에서 후풍을 하다가 항해를 계속해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제주도에 도착하는 곳이 달랐다. 조천관으로 도착하기도 하고 별도포, 화북포에 닿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에서 후풍을 하다가 항해를 계속해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육지에 도착하는 곳이 달랐다. 동풍이나 남풍을 만나면 해남의 관두로 가고, 동북풍일 때는 진도 초도로, 서풍, 서북풍일 때는 영암의 어란이나 해남 백도로 가게 된다.

고려 시대에도 추자도에서 후풍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 관선대사 여진 등이 표류하다가 그 중 265명이 군산, 추자도에 후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원종 4년(1263) 6월 이 달에 일본의 관선 대사 여진 등이 송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배우려고 떠났다가 풍파를 만나 표류하여 승려 속인 함께 230명은 개야소도에 닿았으며 265명은 군산, 추자 두 섬에 도착하였다.³⁶⁾

영원히 송덕하여 금지 보호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신축년 9월 일 제주 조병하 두 번 절함. 그 동생 혁 삼가 씀(「廟○○麗朝都統使崔將軍公蒙○節斧○○候風於斯島○○居民立祠尊宇于合五百餘○○○○安致祥此豈非過化○○○○曹秉廈島任此○其忠義興○○餘作契四時禱祠引成不忘之規而靡尊處往暗葬之幣故稟達營門威給完文上下島民立石頌德永爲禁護 辛丑九月 日 濟州曹秉廈再拜 其弟 燾 謹書」).

○은 마멸되어 판독하지 못한 부분임.

고려장수 김방경과 몽골의 혼도가 삼별초를 치러올 때 추자도에서 후풍을 하였다. 밤중에 풍랑이 거세어져 걱정을 하였으나 새벽에 홀연히 풍랑이 멎어 일격에 삼별초를 쳤으므로 탐라인들이 그 공을 생각하여 이 섬의 이름을 후풍도(候風島)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다.

원종 14년(1273) 여름 4월 김방경과 혼도 등이 탐라를 쳐서 평정하였다. 전라도의 진함 160척만으로 추자도에 머물러 바람을 살피며 기다렸으나 한밤에 바람이 급히 부니 갈 바를 몰랐다. 어둑 새벽에 이미 탐라에 가까이 갔는데.³⁷⁾

공민왕 때 최영이 제주행병도통사(濟州行兵都統使)가 되어 목호를 토벌하기 위해 1374년 8월 12일에 진도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소한도·보길도에 이르자 역풍을 만나서 8월 28일까지 머물렀다가 바다로 나갔는데, 바람을 만나 배 30척이 파손되자 추자도에서 후풍하다가 8월 28일에 명월포로 상륙한 기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최영이 목호토벌을 위해 제주로 가다가 공민왕 23년(1374)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자도에서 바람을 피하려고 머물렀으며 돌아갈 때에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후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³⁸⁾

추자도는 후풍처 역할을 하면서 세곡을 운반하던 배들이 중간에서 쉬는 수참이기도 했다. 조선조 성종(成宗) 때에 왕명을 받들어 양성지(梁誠之) 등 10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편술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제주목(濟州牧)」 편의 「산천(山川)」 조 「추자도(楸子島)」 부분에 이 수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추자는 제주목의 북쪽 바다에 있는데 주위 30리이며 수참(水站)의 옛터가 있다고 했다.³⁹⁾

36) 『고려사』 원종 4년 6월조.

「四年六月 十月 日本官船大使如眞等 將入宋求法 漂風僧俗并二百四十人泊開也召島 二百六十五人到群山楸子二島」.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69쪽 재인용.

37) 『동사강목』 원종 14년 4월조.

「夏四月 金方慶忻都等 討耽羅平之. 全羅道戰艦百六十艘 次楸子島候風 夜半風急 不知所之 黎明 已近耽羅」.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330~333쪽 재인용.

38)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295~296쪽 재인용.

39)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40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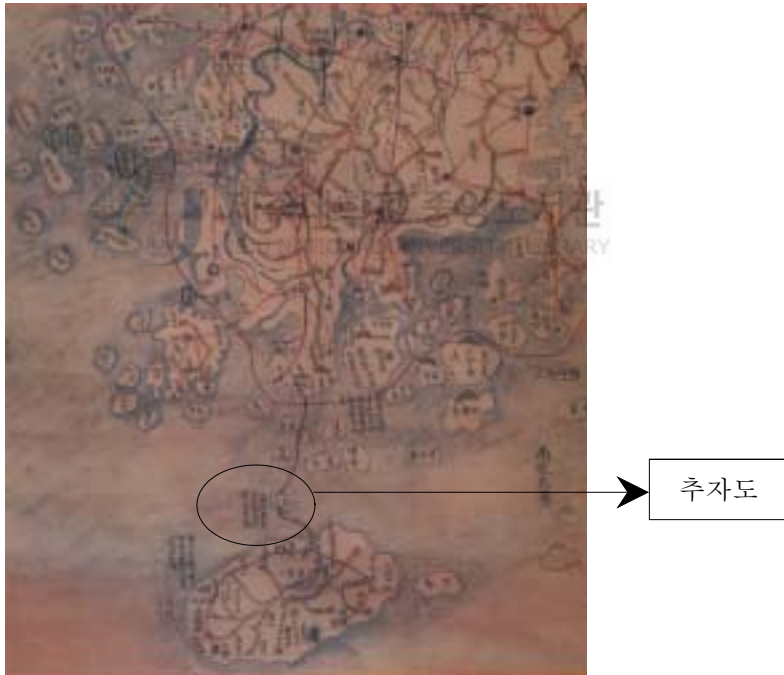
「楸子島在州北海中周三十里有水站古址」.

이를 보면 추자도는 제주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 둘레가 30리라는 것과 배가 머무르는 옛터가 있었고 제주목을 오고가기 위한 중간 후풍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참의 옛터가 어디인지는 알기 힘들다.

<그림 13>은 1790년경에 그린 『팔도지도』이다. 『팔도지도』 중 전라도 지도를 살펴보면 추자도를 그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 섬을 지난다. 바람이 좋으면 하루만에 바다를 지날 수 있다.⁴⁰⁾

제주로 가기 위해서는 먼 바닷길을 가야 하는데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면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추자도는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중간에 있으면서 후풍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4> 『팔도지도』 중 전라도 지도에 나타난 추자도 부분

유배인들이 해남, 강진에서 출발하여도 항해 도중에 추자도에서 순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리거나 설사 중간에 운이 좋아 항해를 해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탐라에 도

40)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 지도』, 일신옵셋인쇄사, 1996, 78~79쪽 재인용.
「入濟州者皆 過此島風利 則一日直過」.

착하는 포구가 달라졌다. 탐라로 가는 길목에서 추자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중간에 추자도가 없었다면 많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대개 탐라로 가는 자가 나주에서 출발하면 무안의 대굴포, 영암의 화무지와도, 해남의 어란량을 거쳐 7주야만에 추자도에 도착하고, 해남에서 출발하면 삼재포로부터 거요량과 삼내도를 거쳐서 이 섬에 이르게 되며, 탐진에서 출발하면 군영포로부터 고자도·황이도·노슬도·삼내도 등을 거쳐 모두 3주야만에 추자도에 도착하게 된다. 제주로 가는 이 세 곳의 선박은 모두 이 섬을 거쳐서 사서도·대화탈도·소화탈도 등을 지나 제주의 애월포나 조천관에 닿게 된다. 대개 대·소화탈도 사이는 두 조류가 교차하여 흐르는 곳이므로 파도가 흉용하여 이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⁴¹⁾

위 글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후풍처로씨의 추자 바다를 거쳐가는 항로는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나주출발

나주→무안의 대굴포→영암의 화무와도→해남의 어란량→추자도 도착

② 해남출발

해남→삼재포→거요량→삼내도→추자도

③ 탐진(강진)출발

탐진→군영포→고자도→황이도→노슬도→삼내도→추자도

이 세 가지 뱃길 중에서 해남과 탐진에서 출발하면 3주야만에 추자도에 도착하고 나주에서 출발하면 7주야만에 추자도에 도착하게 된다. 이 세 가지 항로 중에서 나주가 제일 먼 항로였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커다란 변수였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이나 서풍이냐에 따라 추자도에 배를 댈 수 있는 규모가 달랐다.

사서도에서 동풍을 받아서 들어오면 뱃길이 대단히 넓어 큰 배 수 백 척도 넉넉하다. 수덕도로부터 순풍을 받아 들어오면 겨우 중선 두 세 척을 용납한다. 외연대 포구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⁴²⁾

41) 『고려사』 공민왕 23년 8월조.

「凡往耽羅者 發羅州即 歷務安大堀浦 靈岩火無只瓦島 海南於蘭梁 凡七晝夜至楸子島 發海南即 從三才浦歷巨要梁三內島 發耽津即 從軍營浦歷高子黃伊露瑟島三內島 皆三晝夜 至楸子島 右三處舟船 皆經此島 過斜鼠島大小火脫島 至干涯月浦朝天館 盖火脫之間 二水交流 波濤洶湧凡往來者難之」.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146~150쪽 재인용.

42) 김상헌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58쪽.

소위 당포는 별도 안에 있고 섬의 형세가 에워 싸안은 모양이라 진정 바람을 피하여 배를 돌만한 곳이다. 섬 입구에 돌섬이 솟아 있는데 파면에서 겨우 수척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공이 만약 이곳 해로를 잘 알지 못하면 운선이 잘못되어 뒤집히게 되는 일이 많다.

또 동풍이 크게 불면 섬의 형세가 동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운선할 수가 없고, 포구를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천관 별도포에 있을 때 반드시 동풍을 만난 다음에야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대개 왕래하는 배가 이곳에 와서 만약 동풍과 남풍을 얻게 되면 해남의 관두량으로 향하고, 동풍을 얻으면 진도·초도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서풍·서북풍을 얻으면 영암의 어란포, 해남의 자도포 같은 곳으로 향한다.

대개 섬의 지위가 제주의 서미(西尾)와 상대가 되는데 만약 이 섬이 없으면 제주로 가는 배가 더욱 표몰하는 재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⁴³⁾

동풍을 만나면 병선 300여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곳으로 배를 대고 서풍을 만나면 중선 2, 3척을 겨우 들일 수 있는 곳으로 배를 정박하였다고 하였는데 외연대 포구가 좁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외연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 후포(예전의 원대라고 불리던 곳)⁴⁴⁾쪽이 아닌가 짐작된다.

전인봉이 쓴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에 기록된 후풍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정현으로 유배 가던 정온일행이 해남에서 승선하여 추자도를 거쳐 별도포에 도착하였다. 인목대비의 생모일행이 해남을 출발하여 보길도를 지나 추자도를 거쳐 조천관으로 들어왔다.
- ② 대정현과 정의현으로 유배 가던 신명규, 감조관, 이정기 일행이 해남현, 해창포를 거쳐 배를 타고 어란포, 보길도, 백도를 거쳐 추자도에서 후풍하다가 별도포에 도착하였다.

「自斜鼠順東風而入 則船路極廣 可方大艘數百隻 自愁德島順風而入 則僅谷中船二三隻 外烟臺浦口甚隘故也」.

43) 김상현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59~260쪽.

「所謂堂浦 在別島內 島勢回抱 眞避風藏船之處 島口有石嶼峭起 未出派面 纔數尺 篙工若未諳 此處海路 運船齒且齧 多致傾覆. 友東風大吹 則島勢東缺故不能運船 出浦然比 如在朝天館別刀浦時 必遇東風然後 方可放船. 凡往來倒此若得東風南風 則向海南館頭 得東北風 則向珍島草島等處 得西風西北風則向靈岩 於蘭 海南 白道等處. 盖島之地位 與濟州西尾相對 若無此島 濟州行船 尤難免漂沒之患矣」.

44) 지금은 후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원대’라고 주로 불렀다. (외연대가 원대로 줄여진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7톤 가량의 멜배(멀치잡이배)도 들어와서 작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③ 제주도로 유배중인 김춘택이 해창포→보길도→추자도를 거쳐 조천관에 도착함.
- ④ 제주 대정현으로 유배 가던 장령 임징하가 순안현을 떠나 영암에서 승선→소안도→추자도를 거쳐 이듬달 중순에 별도포에 도착.
- ⑤ 영조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로 유배 간 대사헌 조관빈이 강진포구→일기가 나빠서 보름간 후풍후 출항 →완도 보길도, 추자도에서 며칠간 머뭄. 이듬달 말경에 밤에 별도포에 도착하였다.
- ⑥ 대정현으로 유배 가는 김정희 일행이 해남에서 배를 타고 추자도에 이르렀다가 이튿날 아침 순풍이어서 출항함→화북포에 도착.⁴⁵⁾

이처럼 해남에서 출발하여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별도포나 조천관에 도착하며, 강진에서 출발하여도 중간에 바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별도포나 화북포에 도착하게 된다. 제주도에 육지로 갈 때에도 바람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했다. 『남사록』을 보면 서풍이 불어 제주도에서 해남의 관두로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바람이 그쳐 영암의 어란포로 배를 대는 글이 나온다.

선조 35년(1602) 2월 초 1일 갑자, 맑음, 영암의 어란포 촌가에 유숙하다.

새벽에 문계명을 불러 오늘 풍세가 어떠한 가를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되 “어제 초어스름부터 바뀌어 서풍이 되었으므로 거의 뜻을 비껴 달아 영암 등처로 이어 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공이 기를 달아 바람을 점하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곧 포구를 노지어 나와서 양석(兩席)을 뱃머리에 가로 걸고 조조(早潮)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니, 물결은 잔잔하고 바람은 좋아서 일순에 백리를 달리고, 중간에 수십의 도서를 지나 약 신시에 해남의 관두에 들려고 하였더니 물이 새고 바람이 그친 때문에 이어 영암의 어란포에 들어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랐다.⁴⁶⁾

조선시대에도 청나라 사람이 표류하다가 추자도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온다.

영조 15년(1739) 12월 7일. 청(淸)나라 사람이 추자도(楸子島)에 표류하여 왔다.

45) 전인봉,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 어진소리 민미디어, 1999, 224쪽.

46) 김상헌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61-262쪽.

「二月初一日 甲子. 晴. 宿靈岩於蘭浦村家

曉招文繼明 問今日風勢如何 答云 自昨日初昏 轉爲西風 庶幾橫帆 迤向靈岩等處矣 卽令沙工 揭旗占風 仍督軍人 整理什物 俄頃 沙工等回告曰 旗脚正轉東北 可以發船 卽棹出浦口 橫掛 兩席鷁首 正與早潮俱進 波恬風利 一瞬百里 中間歷數十島嶼 約申時 將入海南館頭 因潮退風 止 進入靈岩於蘭浦 舍舟登陸」.

정원(政院)에서 봉황성(鳳凰城)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⁴⁷⁾

정조 10년 2월 9일,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앞바다에 산둥성(山東省) 등주부(登州府)에서 표류해 온 백성들이 있었다.⁴⁸⁾

<그림 14>는 추자도 근처에서 표류한 표해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표류 경로이다.⁴⁹⁾ 성종 8년(1477) 유구에 표류하였던 김비의 일행, 제주의 경차관이었던 최부, 영조 46년(1770) 과거 보러 육지에 가다가 유구에 표류한 장한철 등은 모두 추자도 근처에서 표류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림 15> 추자도 근처에서의 표류

추자도는 서쪽으로는 진도와 통해 있고 동쪽으로는 강진과 접해 있다. 남쪽은 제주로 갈 수 있으며 북쪽은 곧 영암군으로 통하는 곳이다. 추자도는 상선과 어선이 제주도로 왕래하는 중간지점이어서 안성맞춤인 후풍처이다.

47) 『영조실록』 영조 15년 12월조.

48) 『정조실록』 정조 10년 2월조.

49)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0, 72~73쪽.

3) 추자도와 왜구

추자도는 육지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다. 그래서 추자도 인근에서 왜구들이 제주와 육지를 오고가는 상선을 공격하고 난 후에 식량이나 물이 필요하였을 경우에 추자도에 상륙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추자도민들은 왜구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납치를 당하는가 하면 재물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1272년경 6월 왜구가 추자도에 침입하여 남녀를 납치해 가니 조정에서는 내부부령 송기를 전라도에 보내어 왜적 백여 금을 배었다.⁵⁰⁾

고려 충숙왕 10년(1323) 6월 22일 왜구가 추자도 등에 침입하여 노약한 남녀를 사로잡아 갔다.⁵¹⁾

추자도는 고려시대부터 해적들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해 왔으며⁵²⁾ 고려 충정왕 2년(1350) 경인(庚寅)에 왜구들이 자주 침범하여 조공개(도근천, 지금의 내도·외도 지역) 근처로 옮겨 살았던 기록이 있다. 또한 영흥리에서는 동전 껍미를 우물 속에 담가두었으나 그 소문이 새어 해적들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정도로 왜변(倭變)이 적지 않았다.

세종 원년(1419) 11월에는 제주관관 허담이 제주에 있을 때 제주상선이 추자도에 왔다가 왜적에게 붙잡혔을 때 103명의 모군을 삼판선 17척에 태워 보내서 왜적을 크게 무질렀다는 기록도 있다. 『남사록』에서도 왜선과 도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추자도 사람들의 고통을 살펴볼 수 있다.

선조 35년(1602) 2월 초 1일 갑자, 맑음, 영남의 어란포 촌가에 유숙하다.

대개 봄과 여름 때면 혹은 도적 및 표류하는 왜선이 자주 추자, 사서 등의 섬에 이르러 왕래하는 행선을 표략하기 때문에 해상을 지나는 것이 더욱 무섭다고 한다.⁵³⁾

50) 전인봉,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 어진소리 민미디어, 1999, 58~59쪽.

51) 『고려사』 충숙왕 10년 6월조.

「六月戊子 又寇楸子等島擄老弱男女以去」.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110쪽 재인용.

52)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45쪽.

53) 김상헌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62쪽.

「二月初一日 甲子. 晴. 宿靈岩於蘭浦村家

蓋春夏之時 卽或作賊 及漂流倭船 頻到楸子斜鼠等島 剽掠往來行船 故經過海上 尤爲可畏云」.

추자도는 위치적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암, 해남 등에 종속된 바 있다. 그래서 왜구의 침탈뿐만 아니라 육지부 각 군 수령들의 권한에 따라 이곳의 탐관오리들로부터 조공을 빙자한 수탈을 많이 당해 왔다.

예를 들어 추자도는 농사지를 땅이 좁아서 물고기로 생활하기 때문에 추자도 전체 면적 58결(結) 95부(負) 5속(束)에 대하여 매 결에서 세미(稅米)를 돈으로 20냥씩 대납토록 하고 있으나 아전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수탈을 당해 왔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추자도민의 실태에 대한 글을 옮긴 것이다.

①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추자도는 바로 작은 지대에 불과한데 영암, 수영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백성과 물건이 적어서 다만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유지해 가는데 원래의 요역(法役)외에 영읍(營邑)·아전(衙前)들의 허다한 가림 주구가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 이속시키자는 논의가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이웃섬에 이미 실시한 전례가 있으니 지금부터 특별히 제주목 붙여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 살피게 하라는 뜻으로 해당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⁵⁴⁾

②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방금 전라감사(全羅監司) 조강하(趙康夏)의 보고를 보니, ‘영광군(靈光郡)의 노아도(露兒島)·길도(吉島)·영도(莛島)는 모든 땅이 본래 간석지여서 백성들은 고기잡이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고을에서는 해마다 받아내는 규례라고 하면서 규정 외에 마구 거두어들이고, 아전(衙前)들이 간사한 짓을 하기 때문에 궁벽한 섬에 살고 있는 영락된 백성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흩어져버릴 우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의 백성들은 세 섬에서 장사(興販)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주(濟州)에 이속된 후부터는 영암의 아전들이 만나기만 하면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와서는 고친 것이 종전대로 두는 것보다 못한 것만큼 진(鎭)을 설치하고, 위봉(威鳳)과 남고(南固)의 자체 추천하는 규례대로 별장(別將)을 두어 2년을 기한하고 진을 지키게 하여 섬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진을 설치하려던 것을 중도에 없애버리게 된 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 섬은 해당 고을과 매우 멀리 떨어져있는데, 주인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찌 마구 침해하는 일들이 추천하며 임기 같은 것을 다 보고해서 진달할 바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⁵⁵⁾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 땅도 좁고 농사짓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고기잡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관리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추자도민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진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54) 『고종실록』 고종 18년 8월조.

55) 『고종실록』 고종 20년 2월조.

의논한 내용이다.

③ 심순택(沈舜澤)이 말하였다. “찰리사(察里使) 이규원(李奎遠)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영암 군수(靈巖君守)가 띄운 공문을 일일이 들어서 이르기를, ‘추자도는 본래 영암(靈巖) 관하에 있다가 제주(濟州)에 이속되었는데 감영(監營)의 공문에 의하여 그 섬에 있는 성균관(成均館)에서 받은 면세전(免稅田) 58결(結) 95부(負) 5속(束)을 도로 호조(戶曹)에 소속시켜 나라의 총 조세 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면적에 대한 세미(稅米)를 회계 문건대로 한정된 수량을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섬은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땅은 척박하고 논도 없으므로 그곳 주민들은 고기잡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초에 조세를 정할 때 면적에 따르는 세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규례를 정하고 그대로 바쳐온 지 수백년이 됩니다. 논이 없는 고장에서 쌀을 바치자니 실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섬이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租稅)를 면제하기로 규례를 정한지 수백년이 되고 오늘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쌀을 바친 적이 없는데 이제 그저 정식 공납이 중하다고 해서 갑자기 쌀을 바치도록 독촉하는 것은 섬의 백성을 돌보아주는 조정의 뜻에 전혀 어긋납니다. 제의한 대로 특별히 그전과 같이 돈으로 대납하게 하되 추자도의 전체 면적 58결(結) 95부(負) 5속(束)에 대하여 매 결에서 돈으로 20냥씩 대납하게 하며 계사년(癸巳年)부터 기준 수량대로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⁶⁾

④ “방금 성균관(成均館)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추자도의 어세와 토지 면적은 국초부터 성균관에 주었으나 장부에는 영암(靈巖)에 속해 있습니다. 신사년(辛巳年) 가을에 묘당(廟堂)의 제의에 의하여 제주(濟州)에 넘겨주었는데 아전과 장교들이 마구 거두어 들여 도리어 백성들의 폐해를 증가 시켰으므로 섬 백성들이 모두 해남현(海南縣)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섬의 백성들은 단지 물고기 잡이로 살아가는데 신사년에 옮긴 것이 비록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성균관(成均館)에서 이왕 이렇게 보고하였고 백성들의 폐단과 관련되는 이상 웅당 변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섬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제부터는 해남현(海南縣)에 옮겨 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게 하도록 해당 감사에게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⁵⁷⁾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자도는 영암, 해남, 제주 등으로 소속이 자주 바뀌었으며 그 때마다 이전 소속의 관청으로부터 구박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탐관오리들로부터 갖은 착취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구로부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56) 『고종실록』 고종 30년 10월조.

57) 『고종실록』 고종 31년 2월조.

4) 유배인과 추자도

제주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변방은 어디나 유배지였는데 제주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상 추자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유배의 기록으로는 『고려사』에 대장군 송길유를 추자도에 유배시키는 내용이 있다.

고려 고종 45년(1258) 봄 정월 계축(3일) 대장군 송길유를 추자도에 유배시켰다.⁵⁸⁾

그리고 조선시대 영조 이후에 유배 왔던 사람들의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 추자도에 유배 왔던 사람들(영조, 정조)

| 연월일 | 이름 | 비고 |
|-------------------------|-----|---|
| 영조 1년(1725) | 이진유 | 추자도에 유배됨. 이 때 ‘속사미인곡’ 지음. |
| 영조 46년(1770) 4월 23일 | 정지세 | 임금이 내병조(內兵曹)에 나아가 몸소 정지세(鄭智世)를 신문하여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하되 연한을 정하지 말고 금고(禁錮)하라고 명함. |
| 영조 47년(1771) 4월 24일 | 이일증 | 추자도(楸子島)에 귀양 보내어 친극(楸棘)하게 명함. |
| 영조 48년(1772) 3월 21일 | 유 강 | 추자도(楸子島)에 투비(投畀)하도록 명함. (붕당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임.) |
| 영조 49년(1773) 7월 17일. | 권 업 | 권업을 잡아들여 형장(刑杖)을 가하고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하게 명함. |
| 영조 51년(1775) 6월 26일 | 이석보 | 대사간 이석보(李奭補)가 외방에 있었다는 이유로써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하도록 명함. |
| 영조 51년(1775) 7월 3일 | 황 근 | 추자도(楸子島)에 충군(充軍)시킴. |
| 정조 1년(1777) 1월 16일 | 홍지해 | 추자도(楸子島)로 이배(移配)하게 명함. |
| 정조 2년(1778) 6월 18일. | 윤홍렬 |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한 죄인 윤홍렬(尹弘烈)을 육지로 내보내도록 명함. |
| 정조 3년(1779) 1월 15일 | 오도옥 | 오도옥(吳道錡)을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함. |
| 정조 3년(1779) 7월 25일 | 문경행 | 문경행(文景行)을 추자도(楸子島)로 이배(移配)함. |
| 정조 4년(1780) 1월 8일 | 이보행 | 이보행(李普行)을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함. |
| 정조 8년(1784) 12월 14일 | 유악주 | 유악주(兪岳柱)를 추자도(楸子島)로 귀양 보냄. |
| 정조 9년(1785) 12월 18일 | 송환구 | 송환구(宋煥九)를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함. |

58) 『고려사』 고종 45년 10월조.

「四十五年春正月癸丑 流大將軍宋吉儒于楸子島」.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68쪽 재인용.

<표 6> 추자도에 유배 왔던 사람들(순조, 현종)

| 연월일 | 이름 | 비고 |
|------------------------|-----|---|
| 순조 4년(1804) 11월 19일 | 홍재민 | 홍재민(洪在敏)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하라고 명함. |
| 순조 4년(1804) 11월 21일 | 김용묵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김용묵(金用默)의 죄명을 분간(分揀)토록 하라 함. |
| 순조 6년(1806) 4월 20일 | 서형수 | 서형수를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함. |
| 순조 6년(1806) 5월 20일 | 김인주 | 김한록의 연좌(緣坐)된 죄인 김인주(金寅柱)는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하였음. |
| 순조 10년(1810) 2월 6일 | 김정환 |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로 사형을 감해 노예를 삼아 정배(定配)하라고 명함. |
| 순조 17년(1817) 1월 22일 | 유칠재 | 유칠재는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함. |
| 순조 27년(1827) 4월 1일 | 서만수 | 서만수를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하였음. |
| 순조 27년(1827) 5월 28일 | 서만수 | 전라 감사 이광문(李光文)이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서만수(徐萬修)가 물고(物故)되었다고 상달함. |
| 순조 27년(1827) 8월 19일 | 김기서 | 김기서는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하였음. |
| 순조 30년(1830) 8월 | 윤한모 | ‘효명세자는 덕망이 없다’고 상소한 윤상도와 그 아들 윤한모 추자도에 유배됨. |
| 순조 30년(1830) 8월 28일 | 윤상도 | 가벼운 벌을 따라 윤상도를 추자도(楸子島)에다 정배(定配)하게 하라고 명함. |
| 현종 4년(1838) 1월 22일 | 강시환 |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강시환(姜時煥)을 특별히 놓아 보내도록 하라.”하였음. |
| 현종 6년(1840) 7월 10일 | 윤상도 |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친극(楸棘)한 죄인 윤상도(尹尙度)를 곧 잡아와서 국문(鞫問)하도록 함. |
| 현종 6년(1840) 12월 6일 | 강시환 |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강시환(姜時煥)을 곧 놓아 보내게 하라고 함. |
| 현종 7년(1841) 1월 10일 | 이학수 | 이학수에게 추자도(楸子島)에 친극(楸棘)하는 벌을 시행하라고 명함 |
| 현종 10년(1844) 9월 6일 | 맹학술 | 국청 수인(鞫廳囚人) 맹학술(孟鶴述)을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함. |
| 현종 14년(1848) 5월 9일 | 박희영 | 사형을 감면하여 추자도(楸子島)에 보내어 종[奴]을 삼으라고 명하였음. |

〈표 7〉 추자도에 유배 왔던 사람들(철종, 고종)

| 연월일 | 이름 | 비고 |
|-----------------------------|-------------------|--|
| 철종 4년(1853) 11월 27일 | 최봉주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최봉주(崔鳳周)는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감사 안치(減死安置)하였다고 고함. |
| 고종 7년(1870) 9월 10일 | 정만식 |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추국청(推鞠廳)의 죄인 정만식(鄭晩植)을 영암군 추자도(靈巖郡楸子島)에 귀양 보낼 것을 제의하였음. |
| 고종 13년(1876) 1월 26일 | 조병창 | 조병창(趙秉昌)을 추자도(楸子島)에 귀양 보낼 것을 명함. |
| 고종 16년(1879) 2월 09일 | 조병창 | 추자도(楸子島)에 가둔 죄인 조병창(趙秉昌)을 석방하여 시골에 추방하도록 명함. |
| 고종 30년(1893) 8월 22일 | 안효제 | 안효제(安孝濟)는 추자도(楸子島)에 귀양 보내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라고 함. |
| 고종 30년(1893) 8월 24일 | 안효제 | 추자도(楸子島)에 위리 안치한 죄인 안효제(安孝濟)에게 가시울타리를 치는 법조문을 더 적용하고 귀양지로 떠나보낼 것을 명함. |
| 고종 33년(1896) 4월 18일(양력) | 홍우덕 | 법부(法部)에서 지시대로 선고한 후에 홍우덕(洪祐德)의 감금처소로는 추자도(楸子島)로 하자고 제의함. |
| 고종 33년(1896) 6월 13일(양력) | 정원로 임녹길 안관현 | 정원로(鄭元老)는 5년, 임녹길(林瀟吉)은 남은 2년, 안관현(安寬鉉)은 1년간 추자도(楸子島)에 유배 보내라고 지시함. |
| 고종 36년(1899) 12월 13일 | 김필제 윤제보 | 중신 유형 죄인 김필제, 15년 유형 죄인 윤제보의 유형지를 모두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로 정하니 승인함. |
| 고종 38년(1901) 4월 23일(양력) | 길영수 | 특별 지시로 15년 유배죄인 길영수(吉永洙)에게는 추자도(楸子島)를 유형지로 정하도록 함. |
| 고종 38년(1901) 6월 07(양력) | 한선회 | 10년 유배죄인 한선회(韓善會)는 추자도(楸子島)로 유배지를 옮길 것을 승인함. |
| 고종 42년(1905) 10월 22일(양력) | 이세직 | 이세직(李世植)의 안건을 심리한데 의하면, 피고는 제주도(濟州道) 중신유배 죄인임으로 도로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道)에 유배를 보내자는 것을 제의함. |

추자도에 유배 왔던 인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조선 중기 추자도에 유배 온 박인택은 처사각 뒷편에 살면서 주민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쳐 주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주민들은 박인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처사각을 짓고 매년 제를 지내고 있다. 이 처사각은 1975년 3월 12일 지방유형문화재 제9호



〈그림 16〉 처사각

로 지정되었다.

고종 2년(1865)에 박준갑은 허물어진 최영 사당을 개축 보수 하였고 서당을 지어 교육했다고 한다. 고종 7년(1870) 정만식은 종신유배형을 받아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하추자 목리에 살면서 학문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극진했으며 행동으로 예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고종 13년(1876) 조병창은 3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현지 주민 2~3명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으며 상례법과 한문을 가르쳤다. 광무 3년(1899) 김필제는 대서리에 양정의숙이란 서재를 창설하여 청년들에게 한학문과 예절을 가르쳤으며 같은 해 윤제보가 15년 형으로 들어와 서당을 운영하였다.⁵⁹⁾

추자도에 유배된 사람들 중에 안조환과 이진유는 유배인의 심정과 추자 생활에 대하여 글을 썼다. 안조환이 쓴 만언사는 유배문학의 정수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진유는 속사미인곡을 썼다.

추자도에 유배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중간에 해배되기도 했으나 종신형을 살고 이 섬의 입도조가 되기도 하였다.

추자면 예초리 산기슭에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황사영의 아들 황경한의 묘이다.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⁶⁰⁾로 인하여 아들 경한(2세)은 추자도에 유배되었다. 추자도 갯마위에 놓여진 황경한은 어부 오씨가 키워졌다. 지금 그의 후손들이 추자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추자도에서는 황씨와 오씨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풍습도 생겨났다. 황경한의 묘는



<그림 17> 황경한의 묘

1997년 11월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하면서 신양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졌다.

각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관록에서 밝히고 있는 입도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밀양 박씨, 김해 김씨, 남양 홍씨, 추계 추씨, 원주 원씨, 해주 최씨, 인동 장씨, 강릉 유씨, 화계 변씨, 김해 배씨, 홍양 천씨, 해남 윤씨, 창원 황씨, 진주 하씨, 전주 이씨, 진주 강씨, 청주 김씨, 함안 조씨, 동북 오씨 등이 추자도에 유배된 사람의 후손이다.⁶¹⁾

59)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96쪽.

60)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는 가로 62cm, 세로 38cm 정도의 고운 명주에 바른 해서체로 또 박포박 씌여졌는데 모두 122행·13384글자이다. 황사영백서는 발신자가 '황심(黃沁, 多默:토마스)'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황심뿐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은 황심이 잘 알고 있던 옥천희(요한)이다. 수신인은 주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는 북경교구장으로서는 프란치스코 회원인 포르투갈인 구베아 주교이다.

61)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앞의 책, 1999, 95쪽.

5) 기록에 나타난 추자도의 생활상

추자도는 유배지이면서 후풍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다.

이곳에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추자도의 풍경과 나그네의 심정을 표현한 글이 남아 있다. 그 중 선조 35년(1602) 1월에 김상헌이 제주도 가는 길에 추자에서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며 적은 글을 보면 추자도의 모습과 위치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내가 추자도를 보니 해남에서 이어진 남쪽, 제주에서 이어진 북쪽에 있고 신도와 별도가 있다.

섬의 형세는 둥글게 둘러싸여 동쪽을 향하여 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꼴이다. 신도와 별도사이에는 물길이 끊어져있다. 사서도에서 동풍을 받아서 들어오면 뱃길이 대단히 넓어 큰 배 수 백 척도 넉넉하다. 수덕도로부터 순풍을 받아 들어오면 겨우 중선 두 세 척을 용납한다. 외연대포구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신도는 둘레가 수 십리이고 별도는 십여리이다. 섬으로부터 북쪽은 소위 '육지해(陸地海)'라고 하는데 물빛이 혼탁하고 물결이 높지 않으며 섬으로부터 남쪽은 '제주해(濟州海)'라고 하는데 물빛이 질푸르고 바람이 없어도 물결이 높다. 화탈섬 일대의 물세는 더욱 험하다.⁶²⁾

대개 이 섬은 제주에 왕래하는 물길의 절반되는 위치에 있어서 해남의 관두량·영암의 이진포·당진의 백도포로부터 발선하여 순풍을 만나면 만나절이면 이 섬에 와서 정박하고, 나주의 영산포로부터 발선하여 순풍을 만나면 혹 이틀이나 사흘에 이 섬에 도착하는데, 지지에 말하듯이 해남, 강진과 같은 곳에서 후풍하는 자가 모두 삼주야에 이 섬에 도착한다는 것은 잘 알 수 없다.

소위 당포는 별도 안에 있고 섬의 형세가 에워 싸안은 모양이라 진정 바람을 피하여 배를 돌만한 곳이다. 섬 입구에 돌섬이 솟아 있는데 파면에서 겨우 수척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공이 만약 이곳 해로를 잘 알지 못하면 운선이 잘못되어 뒤집히게 되는 일이 많다.

또 동풍이 크게 불면 섬의 형세가 동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운선할 수가 없고, 포구를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천관 별도포에 있을 때 반드시 동풍을 만난 다음에야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대개 왕래하는 배가 이곳에 와서 만약 동풍과 남풍을 얻게 되면 해남의 관두량으로 향하고, 동풍을 얻으면 진도·초도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서풍·서북풍을 얻으면 영암의 어란포, 해남의 자도포 같은 곳으로 향한다.

62) 김상헌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58쪽.

「余見楸子島 在海南之迤南 濟州之迤北, 有身島別島 島勢連亘回抱 向東如鼠張口之狀 身島別島之間 水路中斷. 自斜鼠順東風而入 則船路極廣 可方大艘數百隻 自愁德島順風而入 則僅谷中船二三隻 外烟臺浦口甚隘故也. 身島周十里 別島拾餘里 自島以北謂陸地海 水色混濁 波浪不高 自島以南 謂之濟州海 水色深碧 無風浪高 火脫一帶水勢尤險」.

대개 섬의 지위가 제주의 서미(西尾)와 상대가 되는데 만약 이 섬이 없으면 제주로 가는 배가 더욱 표몰하는 재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녁에 섬 뒤의 산꼭대기에 올라 둘러보았는데 서쪽을 바라보면 한 점의 섬도 없으며, 동으로 보면 사서, 동사서, 구서, 마서의 여러 섬이 있어 멀리에 가까이에 있어서 있다. 북쪽을 바라보면 광아, 보길, 사은, 초도가 들쭉날쭉 섞여서 서있다. 또 곁과 변두리의 작은 섬들은 거북, 자라가 떠올랐다 잠겼다 하고 고래새끼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이루 다 그 이름을 다 적을 수 없다.⁶³⁾

여기서 신도는 상추자, 별도는 하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도와 별도는 물길이 끊어서 있어서 추자도의 백성들은 두 섬 사이를 다니기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지금은 추자다리가 놓여 있고 차량이 두 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거북, 자라가 출몰하는 듯, 고래새끼가 분주한 듯이라고 표현한 작은 섬들은 38개의 무인도를 뜻하는 것 같다. 섬 하나하나에 이름이 다 있으며 현재 38개의 섬을 마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선조 35년(1602) 1월 29일 임술. 호리고 서풍이 크게 불다. 추자도 당포 선상에 유숙하다. 오래 배안에 있으려니 아주 심심하다. 격군 속에 바닷일을 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으므로 눈앞에서 물속에 잠입해서 전복을 따는 것을 시험해 보게 하였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몇 개를 얻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다. 미역, 해조, 해삼같은 물건들이 물 속에 널려있어 혼하기가 모래나 돌과 같다. 섬의 북쪽 기슭에는 토당이 있는데 왕래하는 뱃사람들이 신령에게 바람을 비는 곳이다. 포구 이름이 당포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⁶⁴⁾

섬의 환경이 험난하여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척박하나 지천으로 깔려있는 해산물은 풍부하여 오로지 생사를 바다에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추자도민으로서는

63) 김상헌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58-260쪽.

「盖此島 往來濟州水路居半 自海南館頭梁 靈岩梨津浦 康津白道浦發船遇便風 則半日泊此島. 自羅州榮山浦發船 過便風 則或二日三日到此島. 地誌所云 海南康津等處候風者 皆於三晝夜到此島者 未可曉 所謂堂浦 在別島內 島勢回抱 眞避風藏船之處 島口有石嶼峭起 未出派面 纔數尺 篙工若未諳 此處海路 運船齒且齧 多致傾覆. 友東風大吹 則島勢東缺故不能運船 出浦然比 如在朝天館別刀浦時 必遇東風然後 方可放船. 凡往來倒此若得東風南風 則向海南館頭 得東北風 則向珍島草島等處 得西風西北風則向靈岩 於蘭 海南 白道等處. 盖島之地位 與濟州西尾相對 若無此島 濟州行船 尤難免漂沒之患矣. 夕登島後山頂 觀眇西望 則極目無日點 島嶼 東望有斜鼠 東餘鼠 龜嶼 馬嶼諸島 遠近列峙. 北望有廣鵝 甫吉, 沙思, 珍島, 草島, 參差錯立 又旁邊小島 如龜鼈出沒 鯨鯢奔走 不可悉記其名」.

64) 김상헌 저, 김희동 역, 앞의 책, 1992, 260쪽.

「二十九日壬戌. 陰 西北風大吹 宿楸子島堂浦船上. 久在船中無聊特甚 格軍數內 多有浦作輩 試於眼前 潛入水底 摘取鮑魚 一返或得數甲 再三返 或不得一甲者 如海藿 海藻, 海蔘等物 布在水底 賤如沙石. 島之北岸 有土堂 往來船人祈神禱風之處 浦名爲堂 以此也」.

바다에서의 안녕과 풍어가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이다. 당포라는 불리는 지금의 대서리에는 최영의 은덕을 기리는 당이 있으며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⁶⁵⁾

후풍도(候風島)어귀에는 장군 김방경(金方慶)이요
명월포(明月浦)머리에는 도통(都統) 최영(崔瑩)일세.
앞뒤로 개선의 깃발 바다 덮었소.
적들도 난리에 피곤하여 서로 응했네.⁶⁶⁾

꿈속에 궁에 가니 長樂鍾이 울리고
觚稜의 새벽빛은 蒼龍이 머물렀네.
九門엔 등촉빛이 별들처럼 빛나고
上苑의 안개 속에 초목이 무성하네.
북극에 잠시 나가 玉音을 전한 다음
翰林院에 돌아와 下賜酒에 취하였네.
깨어나 홀로 누우니 篷窓 바닥이고
멀리 翰林院은 만겁으로 격하였네.⁶⁷⁾

맑은 새벽 占風하여 몇 번이나 건 벗었다.
시름하여 錦囊 속이 비어도 상관 없네.
仙鹿과 친구되기 어려움이 부끄럽고,
갈매기와 길들지 못함이 섭섭하네.
많은 名節 날을 天外에서 머무르니
꿈 속에선 오히려 望鄉人이 되는구나.
이번 길 得失을 또한 어찌 갚을까
心境은 확 트이고 머리털은 새로우네.⁶⁸⁾

65) 이곳에서 지내는 제사를 ‘대제’ 혹은 ‘사당제’라 한다. 대제는 본래 여름철에 모셨다. 여름철에 멀치 어장이 형성되고, 최영을 모시는 것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협에서 대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맡고 있다. 수협에서 대제를 맡으면서부터 제일을 봄철로 옮겨 길일을 받아 제사를 모시기 시작했다. 이는 주요 어업자원이 조기로 바뀌었고 그 곳의 물을 떠다 제사에 썼다. 개인이 정성을 들일 때에는 ‘젓샘’이라는 샘물을 이용한다. 제장에도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과거에는 제주 한 사람을 정하여 제주집에서 목욕제계하고 제반음식을 마련하였다. 제물로는 삼치·시루떡·시금치·산나물·듬부기·녹두나물 등을 준비한다.

66) 이원진 씬, 김찬흡 외 함께 옮김, 『역주 탐라지』,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199쪽.
「候風島口金方慶 明月浦頭都統瑩 前後旌旗蓋海來 渠心厭亂知相應」.

67) 김상현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264쪽.

「夢裡趨朝長樂鍾 觚稜曉色鬱蒼龍 九門燈燭星辰爛 上苑烟霞草樹濃 北極乍聞傳玉語 西清仍宴醉黃封 覺來獨臥篷窓底 迢遞金鑾隔萬重」.

68) 김상현 저, 김희동 역, 앞의 책, 1992, 264쪽.

김방경과 몽골의 혼도가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러 가다가 추자도에서 후풍했던 내용과 당시 추자도가 후풍도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이 막혀 추자도에서 유숙하며 오로지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나그네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절해고도인 추자도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유형수 가운데 가장 중형인 자가 유배되던 지역이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 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은 추자도에 살면서 유배 생활이나 그 당시의 추자 풍경 등을 글로 읊었다. 그 중에서 이진유(李眞儒)의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과 34세에 추자도에 유배된 안조환(安肇煥)의 『만언사(萬言詞)』에 나오는 글을 소개한다.

영조 때 이진유(李眞儒)⁶⁹⁾가 추자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의 내용이다.

혹고도 하고한데 원악디를 골라내여
빅년 형극을 추즈도의 처음여니

석기의 비를미 도둥의 드러가니
촌낙이 쇼쇼혀 수십호어가로다

풍우를 무릅쓰고 와실을 추즈드니
모즈는 다늘리고 룩청의 무지흔대
상상 옥누는 모른대 전혀 업다
말만한 좁은방의 조슬도 만홀시고
팔척 당신이 구버들고 구버니며
다리를 서려누워 긴밤을 새와나니
쥬동의 적신의 북어너불의 모뇌오며

용술간옥을 초창호를 경영홀시
도둥 모든 빅성 단심혀 완역하니
번토운와하던 창화현 풍속일다.
제도는 추억하나 거처는 노쇄하다.

십장형니를 스면의 들너치고
북편의 궁글두어 물길홀 겨우내니
구만리 당턴을 덩등에 보라보듯

「清曉占風幾岸巾 愁邊不省錦囊貧 自慚仙鹿難爲友 長羨溟鷗未可馴 天外已多留節日
夢中猶作望鄉人 茲行得失還堪償 心境恢恢鬢髮新」.
69) 경종 때 정치적인 이유로 추자도에 유배되었을 때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을 지음.

듀야에 들니느니 히도와 밍풍이오
도모의 섯두느니 당무와 만우로다.

승예문밍은 빅가지로 썬지지고
샤갈오공은 스벽의 중횡흐니
흔일도 흥황업고 빅약만 구비흐다
상인 희물홀 것 세상의 하도할사⁷⁰⁾

이진유가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을 쓸 당시는 쓸쓸하게 10여 호 정도의 어촌이 있는 추자섬이었으나 현재 1,415가구, 3,166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당시 추자도 모습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다.

그리고 자급자족할 식량이 부족하고 주거가 어려우며 벌레가 아주 많은 최악의 환경인 황량한 유배지의 환경이 글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절해고도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고 집 또한 보잘 것 없어 유배자에게 친절을 베풀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큰바람을 막을 수도 없는 창, 비가 새는 지붕과 벼룩과 이가 많은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해로운 파리, 모기, 전갈 지네 등이 많고 사나운 바람과 파도소리, 세찬 비바람 등 적소환경이 매우 나쁜 곳에서 생활하는 절박하고 비참한 유배자의 심정을 글 속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정조 시대 이 섬에 귀양 왔던 안조환은 『만언사(萬言詞)』를 지었다. 한글로 쓴 『만언사(萬言詞)』는 전편 2,916구, 속편 594구로 되어 있다. 34세에 추자도에 유배 왔던 그는 유배자의 심정과 그 당시 추자의 풍경, 인심, 유배인들의 생활상 등을 상세히 표현하였다.

西風落日 溟羅水の 屈三閭를 不願터니
此亦天命 홀 일 없다. 一生一死 엇지 흐리
出沒死生 三晝夜의 櫓 지우고 닷을 주니
水路千里 다 지내고 楸子섬이 여기로다.
島中을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으리?
보이나니 바다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碧海桑田 갈린 後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楸子섬 생길 제는 天作地獄이로다.

海水로 성을 쌓고 雲山으로 門을 지어
世上을 끊었으니 人間이 아니로다.

70) 양순필 편저, 『萬言詞散稿(Ⅲ)』, 명문당서림, 1990, 17~19쪽.

風濤 섬이 어디메뇨 地獄이 여기로다.
 어디메로 가잔 말고 뉘 집으로 가잔 말고?
 눈물이 가리오니 걸음마다 업더진다.
 앞뒤에 田畓 없고 물 속으로 生涯하여
 앞 여흥의 고기 낚아 뒷넉으로 장사 가니
 스망 일어 보리 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身兼妻子 세 식구의 糊口하기 어렵거든
 糧食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집이라고 서불손가 기어들며 기어나며
 房 한 간에 主人들고 나그네는 들 테 없네.
 띠자리 한 잎 주어 처마 밑에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증생도 하도 할사
 말 나문 구렁 배암 뺨 나문 청진의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은 두세 집에 솔볼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포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⁷¹⁾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데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⁷²⁾

추자도는 기후와 풍토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생업은 주로 고기잡이이다. 유배자 입장에서 먹을 것이 부족한 섬에서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글 속에서 알 수 있다. 추자도에 도착해서 귀양살이 할 집을 얻어 들고 보니 방은 한 칸인데 나그네가 잘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불편하였다. 말만 방이라 할 정도로 누추하고 보잘 것 없었으며 큰바람과 짐승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추자도는 주거환경이 불편하였음을 글속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추자도는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던 것 같다. 기후와 풍토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육지와 왕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생활용품이 많이 부족하였으며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때 추자도는 보리농사를 아주 많이 하던 때가 있었다. 온 섬이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 농사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시구도 있는데 지금은 농사짓는 땅들이 휴경 상태이거나 그나마 있던 땅들도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

71) 양순필 편저, 『萬言詞散稿(Ⅲ)』, 명문당서림, 1990, 13~14쪽.

72)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43쪽.

6) 기타 유적

그 밖에 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순효각과 군수민공창호영세불망비와 민간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물생이끝당, 한하르방당, 할망당, 산신당, 장승제당이 있다.

순효각은 아버지의 병에는 핑을 구해 드리고 어머니에게는 손가락을 잘라 수혈했다는 학생 박명래(朴明來)의 순효비가 있는 누각이다. 순효각 앞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그림 18> 순효각

자는 응칠 밀양인이요, 경력공 효원의 13세손이다. 일찌기 아버지가 병이 들어 핑 고기를 먹고 싶다 하므로 슬피 울어 하늘에 빌자 다음날 핑을 얻어 드리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도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손가락을 끊어 수혈하여 그 목숨을 연장하니, 목사가 순시하여 포상하고 그 행실을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에 기록했다.

비석에는 앞면 가운데에 ‘學生朴明來純孝之碑’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고, 좌우에 ‘父病得雉 孝當人行 母殞斷指 以延天壽 士林薦文 千秋近跡 道伯褒賞 銘石不朽’라고 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안내판에 있는 내용이 한문 ‘應七密陽朴氏經歷公派孝元之十三世孫 常父病禱天致曲時欲食雉肉 哀泣而求之翌日得焉 母將殞指血灌口一以延其壽 順使褒賞 行狀昭載續修三綱錄而’으로 새겨져 있다.

옆면에는 ‘昭和 五年 庚午 立碣’이라고 쓰여 있다. 소화 5년이면 서기 1931년이다.

순효각 경내에는 또 군수민공창호영세불망비가 있다. 1894년에 세운 이 비석은 상·하추자 양쪽으로 나뉘어 진소(鎭所)가 설치되었을 때 군수가 시찰하러 온 것을 기념하여 지역 유지들이 세운 것이다. 높이가 100cm, 너비가 46cm, 폭이 12cm이다. 건립 당시는 영흥리 마을 입구에 세웠던 것이나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노변에 방치된 것을 순효각 경내로 옮겼다.



<그림 19>
군수민공창호영세불망비

앞면 가운데에 종서로 ‘郡守閔公徹鎬永世不忘碑’라고 새겼고, 그 양쪽에 ‘旣鑄應納再生之秋 且革謬二天之惠’, 좌측면에 ‘丙寅 六月 日’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글씨가 없고 얇게 벗겨지듯 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추자도는 제주도에 속하지만 문화권은 전라도에 속한다. 그러나 당은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당과 같은 형태이다. 다만 본향당이니, 일뤼당, 여드랫당, 개당 등의 세부적인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마을에서 중심적인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을을 한 눈에 굽어보는 위치에 자리 잡은 산신당이다. 이것이 제주도 본섬의 본향당과 같은 구실을 한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해신당을 두어 섬긴다. 이는 육지부의 신앙 형태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예초리 물생이끝당은 예초리 인가에서 동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10분쯤 가면 커다란 바위 줄기가 길게 바다로 뻗어 내려간 곳이 있다. 바위 줄기는 맨 윗부분에서 2m 가량 간격을 두고 끊어져 통로가 되고 있는데 끊어진 위쪽 바위 아래 당을 마련하였다. 바닥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었고, 오른쪽에는 바람을 막기 위한 벽을 블록으로 만들었다. 원래는 1m 정도의 높이로 만들었던 벽이 허물어져 있다. 해신당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밖의 다른 시설은 없다.

횡간도 한하르방당은 횡간도 정상부 후박나무숲에 있다. 이곳을 흔히 ‘당산’이라고 한다. 후박나무 그늘을 의지하여 당을 마련하였다. 넓적한 자연석을 제단으로 삼는다. 이곳에서 모든 제물을 마련한다.⁷³⁾

목리 할망당(처녀당)은 마을 남쪽 속칭 ‘당목치’라고 하는 바닷가의 높은 동산 꼭대기에 당이 있다. 추자면에서는 유일하게 당집을 지어 모시고 있다. 블록으로 벽을 쌓은 뒤에 시멘트를 발라 마무리하고 지붕은 기와 모양의 슬레이트를 덮었다.

주민의 말을 들어 보면 제주도에 물질하러 올 때 데리고 왔던 아기 업개가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당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당에는 여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도 다니며 명절 때에는 마을에서 제관을 정하여 제를 올린다고 한다.

마을에서 중심적인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을을 한 눈에 굽어보는 위치에 자리 잡은 산신당이다. 현재는 장군당을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군당에 제사를 모시기 전에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고, 장군당 제사가 끝나면 해신당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 장군당에는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으나 산신당이나 해신당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그러나 목리·예초리·횡간도 등에서는 따로 산신당이나 해



<그림 20> 물생이끝당



<그림 21> 목리 할망당(처녀당)

73) 복제주군·제주대학교담라문화연구소, 『복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일원피엔씨, 2002, 268쪽.

신당을 두어 전통적인 신앙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산신당은 처사각 오른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다 위로 올라가면 좁은 계단이 만들어졌고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신당에 이른다. 당은 암벽을 의지하여 동쪽을 향하여 트인 모양으로 시멘트로 축조하였는데 완전한 집 형태를 갖추지 않고 좌우 벽과 지붕만 만들었다. 서쪽면에 ‘산신령 신위(山神靈 神位)’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고 그 앞에 시멘트로 제단을 차려 놓았다. 제장(祭場)에는 서너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정도이다. 건물 입구에는 ‘산신당(山神堂)’이라는 비석을 세워 놓았다.

언제부터 산신당을 지어 제를 지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제관들이 당 밑에 천막을 치고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데, 최영 사당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으며 최영 사당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사 방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설과 추석 전날에 주민들 대부분이 제를 지내러 가고, 평소에도 소원을 빌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나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예전만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마을에서 산신당에 가는 것은 풍어제의 첫째 과정이다. 제일은 음력 2월 15일이며 해가 질 무렵에 지낸다. 대체를 모시는 제관이 산신당 제에도 제관이 되는데 밥·사과·나물·떡·제주를 제물로 올리고 제를 지내고 나면 제관만 음복을 하고 나머지는 물어 버린다.

예초리 장승제당은 예초리 마을 서쪽 입구 속칭 ‘엄바위(엄바구)’ 밑에 나무로 만든 장승 ‘역발장사’가 서 있는데 그곳에 제를 지내는 풍습을 말한다. 장승은 소나무로 만들며, 나무가 썩어 못 쓰게 되면 태워 버리고 다시 만들어 세운다. 다시 만들 때에는 특별한 제의를 갖추거나 날을 받아서 하지는 않는다. 세울 때에도 이장이 술 한 잔 올리는 정도로 간단히 고사를 지내고 모신다.



<그림 22> 예초리 장승제당

옛날 이 마을에 장사가 살고 있었는데 횡간도로 건너뛰다가 미끄러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예초리 포구에 ‘장사공돌’이라는 바위가 다섯 개 있었는데 이 바위들을 공기돌 삼아 공기놀이를 했다고 한다.⁷⁴⁾

장승은 이 장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승에 대하여 제를 지내는데 마을 이장이 주관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당 밟기를 한다. 걸궁패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는 미리 준비해 둔 제물을 내놓는다. 포수가 그 제물을 받고 물을 지붕 위로 뿌리며 한해의 복을 기원해 준다.

장승을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로 대접을 얹어 놓은 모양의 기단부를 만들었고, 장

74) 이 공기돌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아도 이야기만 알고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

승의 앞에는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있다. 이전에 있던 장승은 썩어 없어지고 새로 만든 장승이 채색이 되어 있고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글씨가 새겨져 있다.

3. 일제강점기의 추자도

1910년에 있었던 수적란(水賊亂)⁷⁵⁾은 추자도 섬사람들의 시달림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변방 중의 변방이며 조선 시대의 가장 힘든 유배지였던 추자도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식민지 정책에 따라 수산 기지로 발전하게 된다. 일본은 수탈어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령을 공포하고 1912년부터 어업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한다. 1919년에 추자도에도 어업조합이 설립된다. 어협의 횡포는 극심하였으며 1926년을 시발로 하여 193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어민항쟁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은 『추자도』에 실린 어민 항쟁 내용이다.⁷⁶⁾

1926년 5월14일 오후 3시경 추자면민들이 대거 운집하여 면장과 추자어업조합에 대한 불평, 불만이 폭발하여 관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 형세가 대단히 격렬하여 목포에서의 증원 경관 20명, 또 제주에서 파견된 경관 18명이 급거 추자도에 상륙, 사태를 진압하고 소위 주동자 21명이 검거되어 제주경찰서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았다. 1932년 ‘제주의 해녀항쟁’ 때도 전남 경찰에서 대거 증파되었는데, 제주 주재 소속 경찰관의 공권력으로 제지하지 못하면 즉시 육지부로 증원부대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추자면민의 저항운동이 거세자 제주기자단에서는 그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홍순일·윤석원을 현지로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밝혀진 내용은 이 사건이 있기 9년 전에 추자어업조합이 조직되었는데 1920년 어구를 매입한다고 결탁하여 어업조합 명의로 식산은행 제주지점에서 8,000원이란 거금을 차입, 당시의 추자면장 원모씨와 전라남도 해남 사람 양모는 서로 공모하여 이를 횡령, 목포에 가서 탕진하여 버렸다. 또 식산은행에서 4,000원을 차입하여 어구를 구입하고 조합원에게는 갑절이나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들이 누적되어 이러한 부정이 탄로 나자 수년 동안 걸쳐 쌓인 격분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었다.

또 이 사건의 근인으로는 1926년 5월 11일 추자어업조합장 김상진과 동 이사 황석희 등이 면사무소 직원과 공모,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천초를 강제로 매입하기로 결탁했다. 김상진은 이를 거절하는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자 추자 청년 양원동

75) 추자의 남정네들이 어업차 바다로 간 사이 대낮에 수적선 두 척이 추자항으로 들어와 약탈을 하고 나가는 것을 바다에서 조업하던 잠수기선 어부들이 보고 소안도 진산리 본소에 연락하여 응원을 받고 수적 12명을 모두 잡아 영흥리 앞 속칭 ‘소만여개’에서 모두 굶겨 죽인 사건이다.

76)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69~70쪽.

등 몇 명이 김상진의 행동을 책망하였다.

이렇게 되자 궁지에 몰린 김상진은 추자경찰관주재소와 결탁하여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윤원동이 경찰관주재소로 구인되어 억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추자 섬 안에 알려지자 추자군도 가운데 하도의 예초리 남녀 700여명이 모여 추자어업조합의 부당성을 응징하기로 하고, 먼저 김상진을 생포하기에 이르렀다. 극도로 흥분한 주민들은 상도의 대서리에 있는 어업조합사무실로 몰려가서 “공동판매를 폐지하라.”, “조합장을 잡아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한편 위급함을 알아차린 김상진은 도망을 가고, 주재소의 경관이 총기로 위협하자 오히려 주민들은 그 총을 빼앗는 동시에 추자면사무소에 들어가 기물들을 파손시켰다.

5월 15일 하오 2시에 주민들은 완전 해산하고, 목포로 피신한 김상진은 목포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목포서에서는 무장경관 20명이 경비선을 타고 5월 16일 추자에 도착, 주동자 21명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이 일로 추자 어민들이 검거되고 형을 받았다.⁷⁷⁾

다음은 『제민일보』에 「'사와다 그물망사건'을 아십니까」라는 내용으로 실린 어민항쟁 내용이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1932년 추자도 어민들이 어족을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일본인들에게 맞서 투쟁했던 항일 운동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속칭 '사와다 그물망 사건'. 추자도의 남녀노소 100여명이 그 해 봄 추자도 내수면(연안 어장) 삼치 어장을 고갈시키고 추자 어민들에 생존 기반을 빼앗는 일본인들에게 맞서 항의 하면서 발생했다. 추자 어민들이 연안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만 어업 행위를 했으나 일본인들은 유자망 어선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어족을 남획했다. '사와다 그물망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일본 유자망 어선을 이끄는 사와다라는 일본인의 이름을 따서 붙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추자도 어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내수면에서 유자망 어업 행위를 금지시켰다가 다시 일본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해제시킨 것이 사와다 그물망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추자도 어민 13명은 이 항일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소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구금돼 모진 고문 속에 재판을 받고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⁷⁸⁾

77) 검거되어 형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봉수(35세, 어업, 영흥리), 박병석(34세, 어업, 영흥리)은 각각 징역 7월, 김기성(28세, 어업, 영흥리), 이봉문(44세, 어업, 영흥리), 추남수(31세, 어업, 영흥리), 김등수(33세, 어업, 영흥리), 박천석(36세, 어업, 대서리), 원일개(31세, 어업, 대서리), 고일주(43세, 어업, 대서리), 원용현(39세, 어업, 대서리), 박복순(42세, 어업, 대서리), 고태욱(38세, 어업, 대서리)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수형자명부, 증언).

78) 「'사와다 그물망사건'을 아십니까」, 『제민일보』, 1999년 2월 28일.

또한 추대엽씨의 『楸子島銘』⁷⁹⁾에도 이 사건 내용이 실려 있다.

西紀 1935年 乙亥에 海南人 吳聖吾 理事가 就任하고 朴鐘來가 副理事로 任할 때 日本人 漁民主導者 澤田(사와다)이 처음으로 삼치 流刺網을 始作하여 內水面(안골)에서 매일 豐漁旗를 달고 漁獲高를 올리니 島民들이 憤氣하였고 零細漁民들이 蹶起하여 男女老少가 雲集하여 그 者의 漁船과 漁網을 引揚하고 住宅을 줄로 매어서 倒壞之境에 매마침 濟州警備船이 急派되어 船內에서 물뽐뿌를 드러매여 群衆을 解散시키고 事態는 收拾되었으나 數十名이 拘禁致致되어 問招 끝에 煽動者 朴千石·元成彩(大西里) 金鳳洙·朴炳碩(永興里) 4名이 引責 懲役 3個月씩에 처하고 餘外는 訓放으로 끝났으나, 漁撈區域을 2個로 나누어서 內水面은 日本 釣用 區域이고 外水面에서만 流刺網이 操業하기로 設定되었는데 幾年後에 麗水·慶南 流刺網組合 漁船團이 몰려와서 水産法規上으로 制限할 수 없다고 數日 鬭爭 끝에 그 해부터 制限 區域이 解除된 事件을 ‘사와다그물사건’이라고 由來하고 있다.

1912년부터 추자도에도 어업조합이 설립 운영되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연근해에서 그들의 합법적 어업 경영의 길을 열고 조선의 수산업 진흥을 빙자한 수탈어업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어업조합의 횡포는 극심하여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어민항쟁이 계속되었다. 어민들은 일제가 마구잡이식으로 고기를 남획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투쟁한 것이다.

예로부터 추자도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긴 하지만 식수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일제 초기부터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추자도에도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추자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알고서 1936년부터 1938년 사이에 13,000톤 저수량의 제1저수지를 대서리 산 234번지에 만들었다.

『楸子島銘』에는 ‘西紀 1936年 當時 日帝治下인 때 島民의 食水難을 解消키로 中央廳 水産會 補助金 1000圓과 日本居留民과 地方有志의 義捐金과 上下島民 賦役으로 大西里 大谷에 所在한 第1貯水池를 2年 8個月(西紀 1938年 8月)만에 完工되었으나 下島 賦役人이 每日 來往할 때 津船이 顛覆되어 默里 ○○○氏가 溺死하여 人命被害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⁸⁰⁾

산허리를 한 바퀴 둘러싼 수로를 만들어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저수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물을 모았다. 저수지 바로 아래에는 정수장이 있다. 정수

『제민일보』에는 1932년에 ‘사와다 그물망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936년이 옳은 것 같다.

79) 추대엽, 『楸子島銘』, 필사본, 1977, 89쪽.

80) 추대엽, 앞의 책, 1977, 43쪽.

장은 직사각형 시멘트 구조물인데 가운데 벽을 두어 2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바닥에 하얀 모래를 깔아 정수하였다. 이 저수지에 연결된 수도는 35가구 156명(1934년 통계)의 일본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다.⁸¹⁾

그러나 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사람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었는데 집집마다 작업 할당량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저수지공사를 위해 동원되었던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식수일 것이다. 각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고 소중히 다루었다. 대서리에는 여러 개의 샘(큰샘, 젓샘, 흑샘, 가운데샘, 공그르샘, 끝에샘)이 있다. 특히 끝에샘은 일본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샘이라는 명칭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큰샘이나 일본샘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이 우물 안에 긴 파이프관을 가정으로 연결시켜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샘에 쓰여진 글(일본사람만 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추자도에는 1944~1945년에 일본군이 만든 갯도진지가 10여 개 있다. 예초리 서쪽 해안에 6개를 비롯하여 예초리 동쪽 해안(물생이끝, 신대 남쪽)에 3개 있고, 예초리 앞에 보이는 섬 '검은가리'에도 2개의 구멍이 보인다. 대체로 폭 2~3m, 높이 2m, 깊이 5~10m 정도로 되어 있다. 이 갯도진지는 결7호 작전과 관련이 있다.⁸²⁾



<그림 23> 예초리 갯도진지(1)



<그림 24> 예초리 갯도진지(2)

81)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117쪽.

82)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세운 '일본 본토 방어 작전'을 '결□호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연합군의 예상 진격로를 7곳으로 설정하고 그 진격로를 막는 작전이다.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제주도에서의 작전이 '결7호작전'이다.



<그림 25> 예초리 갯도진지(3)



<그림 26> 예초리 갯도진지(4)



<그림 27> 예초리 갯도진지(5)



<그림 28> 예초리 갯도진지(6)



<그림 29> 신대 갯도진지(1)



<그림 30> 신대 갯도진지(2)



<그림 31> 신대 갯도진지(3)



<그림 32> 신양리 7자동굴

예초리에서 버스 다니는 길을 따라 신양리로 가다 보면 가파른 동산을 넘게 되는데 이 동산을 다 오르기 전에 왼쪽으로 계단이 서너 개 놓여 있는 소로가 있다. 소로를 따라 가다 보면 묘가 있고 그 묘에서 오른쪽으로 20여m 되는 곳에 이 지역 주민들이 ‘7자동굴’이라 부르는 갯도진지 입구가 있다.

이 굴은 일본군이 결 7 호 작전의 2 단계인 게릴라전에 대비하여 만든 것으로 너비가 약 1.5~2m, 높이가 약 1.9~2m이고, 8~9m쯤 들어간 곳에서 왼쪽으로 직각으로 꺾이는데 그 부분은 너비가 2~2.5m쯤 된다. 길이 7m쯤 되는 곳에서 또 왼쪽으로 꺾이는데 바로 꺾이는 부분은 통로가 너비와 높이가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높이와 너비가 각각 2m쯤 되며 5m쯤 더 들어가면 밖으로 연결된다. 즉 입구가 둘인 갯도진지다. 유사시 지휘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때 추자도에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본식 집들이 지어지게 된다. 특히 대서리 일대에 일본식 집들이 추자항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섰으나 지금은 남아 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또한 일본인들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추자도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추자도에 살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양력설(일본설)을 지내게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추자도에 살던 일본인들은 해방이 되면서 추자도를 떠나게 된다. 그 때에 ‘맘마’(일본인 노무자) 라고 부르는 일본인은 해방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한 동안 추자도에 살았다.

추자도의 어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많이 남획되었으며 어업조합의 횡포로 어민 항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외 추자도에 있는 현대 유적으로는 추자다리, 반공탑이 있다.

추자다리는 상추자와 하추자를 잇는 다리로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2년이였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로는 최초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는 1993년에 붕괴되었다. 그후 1995년에 새로 추자다리가 만들어 졌는데 이 다리의 길이는 212.35m, 폭 8.6m이다.

추자면 대서리 등대산에는 반공탑이 있다. 이 탑은 1974년 추자도 간첩사건 때 전사한 분들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탑이다.

IV. 맺음말

우리가 보통 제주도를 총칭할 때에는 제주 본섬과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 등을 통틀어서 칭하나 그 말 속에 추자도는 제외될 때가 있다. 우리 스스로도 추자도를 제주도가 아닌 또 하나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추자도가 제주도적인 문화요소보다는 전라문화권에 더 가깝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도와 의 공동문화권을 찾고 새로운 제주역사의 지평을 열기 위하여 추자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상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속하는 추자군도는 제주시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서, 4개의 유인도서와 38개의 무인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유인도 중 상추자는 추자군도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대서리와 영흥리 두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하추자는 상추자보다 면적이 넓으며,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횡간도는 행정구역상 대서리에 속하고, 추포도는 예초리에 속한다. 추자도의 인구는 1969년에 6,771명이었으나 점차 인구가 감소하여 지금은 총 3,166명(2004. 12. 31. 현재)이며, 주 생산 기반은 수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추자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자도의 선사문화 유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서리에 추정 고인돌군이 있고 예초리에 유물산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추자도의 지명은 설촌유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가래나무 열매가 마치 바둑알처럼 흩뿌려 놓은 것 같다하여 추자도로 불리었다고도 하며 추자나무 숲이 무성하여서 추자도라 불리었다고도 한다.

셋째, 추자도는 서쪽으로는 진도, 동쪽으로는 강진, 남쪽으로는 제주, 북쪽으로는 영암으로 통하는 곳이며 상선 등을 이용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자도는 예로부터 심한 풍랑을 피해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후풍도로 알려져 왔다. 고려 때 삼별초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김방경과 몽골장수 혼도가 제주로 진격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후풍처로 삼았으며, 고려 공민왕 때에는 풍랑을 피해 이 섬에 들린 최영이 주민들에게 고기 잡는 법과 농업기술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앙과 제주를 왕래하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상선들도 이곳을 후풍처로 삼아 묵어갔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 충정왕 때에는 추자주민들이 제주시 도근천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영암, 해남, 제주 등으로 자주 이속함으로 말미암아 탐관오리들로부터 많이 고통을 당해 오다, 조선말

순조 21년 1821년에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1831년에는 제주목에, 1894년에는 완도군에 예속되었다가 1914년 제주도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변방은 어디나 유배지였는데 제주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상 추자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절해고도인 추자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유배 온 사람들은 이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추자도에 유배된 사람들 중에 이진유와 안조환은 추자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속사미인곡과 만언사를 썼으며, 특히 안조환이 쓴 만언사는 유배문학의 정수로 손꼽히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업조합의 횡포가 극심하였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고기를 남획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와다그물망사건'과 같은 어민 항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넷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추자도에는 대서리 추정 고인돌군, 최영 사당, 처사각, 순효각 등 역사, 생활문화 유적, 신앙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추자도에 남아있는 이런 유적들을 통하여 현재 추자도의 모습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에게 추자도지역 역사교육에 대한 현장 탐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향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토사 학습은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기 고장 역사에 대한 이해와 탐구는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유적을 통해 생생한 역사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라도에 속해 있던 추자도가 제주도에 속한 지 오랜 시일이 흘렀지만, 지리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어느 한 쪽에 확실하게 속할 수 없기에 아직도 추자도민은 생활·언어·정서면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혼재 양상을 띠던 추자도민의 생활 풍습도 점차 제주문화권에 가깝게 변하고 있어 머지않아 제주민과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 논문이 추자도 향토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인식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써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천형, 『탐라사료집(탐라사료문헌집)』, 디딤돌, 2004 .
- 고광민, 『제주도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고광민, 『제주도포구연구』, 각, 2004.
- 고창석 편저, 『탐라국사료집』,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0.
-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 김상헌 저,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 김성찬, 『44개의 섬이 물위에 뜬 추자도』, 도서출판 반석, 2002.
- 김영희, 『섬으로 흐르는 역사』, 동문선, 2002.
-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신편고려사절요』, 신서원, 2004.
- 북제주군, 『북제주군반세기』, 라인컴퓨터네셔널, 1997.
- 북제주군·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일원피앤씨, 2002.
- 양순필 편저, 『萬言詞散稿(III)』, 명문당서림, 1990.
- 이원진 씬, 김찬흡 외 함께 옮김, 『역주 탐라지』, 도서출판 푸른 역사, 2002.
- 이창복, 「추자군도의 식물상」, 『추자군도의 생물상 조사 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 이청규, 『제주도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2004.
- 전국역사교사모임연합회, 『사료로 보는 역사』, 도서출판 돌베개, 1992.
- 전인봉, 『유배지에서 만난 한국역사』, 어진소리 민미디어, 1999.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가파도 학술조사 보고서』, 대영인쇄사, 2001.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 지도』, 일신옵셋인쇄사, 1996.
- 제주문화, 『고려사 제주록』, 도서출판제주문화, 2000.
- 최태정,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 추대엽, 『楸子島銘』, 필사본, 1977.
-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 『추자도』, 선진인쇄사, 1999.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향토사의 길잡이』, 수서원, 1996.

<논문>

- 고효숙, 「향토사 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방법」,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경옥, 「고금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제13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1995.
- 김동진, 「제주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 편, 경인문화사, 2000.
- 김정희, 「국사학습을 통한 향토자료 활용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찬수, 「향토사자료를 활용한 국사 학습지도 방안연구: 수원지방의 화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반종갑, 「향토사 학습내용의 조직과 활용에 대한연구: 강원도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춘천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동창, 「이천지역의 향토사연구: 선사시대~고려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영희, 「향토사료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개선방안」, 한국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옥희, 「향토 자료 조사학습을 통한 초등학생의 지역 정체성 함양: 오산 화성시 지역과 학습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재희, 「국사교육에 있어서 거제향토사학습의 내용선정과 활용방안 연구」,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정홍, 「초등학생의 향토사 교육에 관한 일 연구: 김해 지역 향토사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해준, 「소안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제11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1993.
- 이해준, 「조약 (약산)도 지역의 역사문화배경」, 『도서문화 제12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1994.
-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진호영, 「초등학교 향토사 학습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ABSTRACT>

A historic and cultural background and feature of Chujado

Ko Haeng-M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This study is a fundamental research concerning history and cultures in Chujado, which is called the Chuja islands.

First, I took a closer look at a human and geographic environment in order to help the basic understanding about Chujado.

Second, I got the literature materials together about history and cultures of Chujado to help the inhabitants establish their identity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time.

Third, I tried to enlarge the horizon of the culture in Jejudo by interpreting the culture of Chujado which was mixed with the culture of Jejudo and Jeollado, but still has its own originality.

Fourth, I looked into historic remains materials in detail and explained them to be utilized as learning materials to understand history and cultures of Chujado for both students in Chujado and students in Jeju area.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The Chuja islands consist of 4 inhabited islands and 38 uninhabited islands such as Sang Chuja, Ha Chuja, Hyeunggando and Chupodo. Chujado led to Jindo, Gangjin, Jeju and Youngam, and a large number of people used a merchant ship. The population of natural villages in Chuja where 2 Sangchujas and 4 Hachujas was divided was about 7,000 people, but now the population of them is about 3,000 people. About 90% of the inhabitants work at fisheries industry.

Second, It seemed that people began to live in Chuja from prehistoric times when we looked into Yechori's relics and remains to be regarded as dolmen of Daeseori. They said that General Choiyoung taught them how to catch fish and how to grow agriculture. Once they moved near Jeju because of frequent invasions of Japanese pirates. Chujado belonged to Youngam, Haenam, Jejudo and so on. Chujado has belonged to Jejudo since 1914. There was fishing people's resistance against tyranny of fishing unions under the rule of Japan.

Third, The inhabitants in Chujado are experiencing confusion in the aspect of life, language and feeling. Chujado belongs to Jejudo in administrative district, but the way of language and living is close to Jeolla-do. But the way of living of people in Chujado comes closer to Jeju through making a continuous interchange with Jejudo.

Fourth, Many kinds of the relics of history, cultures of living, and faith exist in Chujado such as the relics of Daeseori to be regarded as dolmen, Yechori's earthenwares in ancient Jejudo, General Choiyoung's shrine, Cheosagak, Soonhyogak and so on. Thi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materials for students in Chujado and Jeju area and people who have an interested in local history.

I expect that Chujado which consists of 42 islands, will be developed rapidly in the time of sea because of plenty of fisheries resources and clean sea areas. This thesis is an elementary guide for deep research as basic materials to understand Chuja islands.

I hope that this thesis will be a clue for understanding the pattern of life and history of Chujado.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February, 2006.

